국립극장 미르
NT OF KOREA MAGAZINE MIR
2019 12 Vol. 359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CONTENTS

03 **받은 편지함**

05 **오브제**
달 아래 초롱 하나 '청사초롱' 이정연

07 **칼럼**
마당놀이,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닮았다 정덕현

SPECIAL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0 **지금, '춘풍이 온다'가 있기까지**
또 한바탕 놀아보시게나! 유석재

14 **춘풍이네 캐릭터 엿보기**
프사 읽어드립니다

18 **국립극장 마당놀이 BEST 4**
함께 논 벗의 생각은 어떠한가?

20 **마플릭스Maflix로 다시 보는 마당놀이**
마당놀이가 온다 서정완

국립극장 미르

국립극장 월간「미르」2019년 12월호 Vol. 359
National Theater of Korea Magazine MIR I December 2019

「미르」는 국립극장에서 발간하는 월간 공연예술 교양지입니다.
'미르'는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용처럼 힘차게 우리 민족의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세계에 널리 전파하겠다는 국립극장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르」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필자의 글은 국립극장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와 밀리의 서재, 조인스 디지털가판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표지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표지 사진 전강인
표지 일러스트 이승정

발행인 김철호
편집부장 김경남
편집팀장 박혜주
기획 및 편집 이정연·차경주
사진 전강인

ISSN 2287-6383
발간등록번호 11-1371032-000006-06
발행처 04621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발행일 2019년 11월 28일
통권 359호
편집실 국립극장 홍보팀 I 전화 02-2280-5893 I 이메일 magazine@ntok.go.kr
편집·제작 오니트(주) 02-337-3690

VIEW

26 **프리뷰 1**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메리 국악 크리스마스 장경진

28 **프리뷰 2**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정광수제'
공력 있는 소리로 지새우는 송년의 밤 유영대

30 **리뷰 1**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I '3분 관현악'
낯설어도 새롭게 임희윤

34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집 1**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별 대담
공연예술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 이정연·차경주

38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집 2**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무대디자인'展
무대 예술가의 무한한 상상 변희원

MIX

50 **세계무대**
뉴욕·아비뇽 공연예술 아카이브
잠들어 있는 공연예술자료를 깨우는 시도 지가은

54 **전통 예술 기행**
헝가리 부쇼야라시
헝가리인의 아픔과 불안을 치유하다 김병선

58 **삶과 노래 사이**
맛있게 까먹는 우리네 겨울 소리
낭만과 인정이 흐르는 겨울 노래 권오경

62 **예술서적**
미우라 가요 '미술관에 간 과학자'
명화를 낯설게, 세계를 더 낯설게 박사

GUIDE

41 **국립극장 12월 공연**

42 **12월의 기대작**

46 **국립극장 이용 안내**

NTOK

68 **두 공기: 두고두고 회자되는 공연 기록**
'청淸'
음악극으로 거듭난 창극 하을란

70 **예술배움**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노인을 위한 예술은 있다 박윤조

74 **국립극장 소식**

76 **전시의 단면** 이주현

MIR

국립극장

NATIONAL ORCHESTRA OF KOREA
NEW YEAR'S CONCERT

국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2020.1.16.(목) 20:00
롯데콘서트홀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예술감독·지휘 김성진
관람료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예매 국립극장 02-2280-4114 | 인터파크 1544-1555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미르」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얼마 전 국립창극단 '심청가'를 즐겁게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립창극단 '패왕별희'를 다룬 '창극의 새 증명' 기사가 반가웠어요. 세계화의 길을 찾는 창극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꽉 찬 「미르」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의 수고가 깃들었을까요. 그 노고를 떠올리니 새삼 감사합니다.

강건우 님(독자엽서)



사자성어를 모티프로 해서 글을 쓰는 기자 겸 작가입니다. '패왕별희, 어디까지 알고 있니?'에서 초한전쟁 당시 생성된 고사성어가 자그마치 100개가 넘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귀중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사 속 내용이 저의 글쓰기에도 큰 도움이 됐기에 만족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냅니다.

홍경석 님(독자엽서)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마음의 온도를 살피는 과정'이란 문장을 읽고 가슴 한구석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림책에서 얻는 위로,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가브리엘 벵상의 '시메옹을 찾아 주세요'를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글을 보거나 대화를 나눌 때 위로를 기대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런 마음에서 추천해주신 2권의 책 '어른의 그림책' '단어수집가'를 소중하게 읽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님(독자엽서)

「미르」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자엽서와 이메일(magazine@ntok.go.kr)은 물론 국립극장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에 대한 감상이나 국립극장과 「미르」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보내주세요.
글의 분량이나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의견이 채택된 분께는 공연 초대권을 드립니다.

***당첨자 연락을 위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독자의견 혹은 구독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내실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
정광수제

12.28토 3pm
국립극장 | 하늘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청사초롱

달 아래 초롱 하나

달마저 기운 어두운 밤, 제등을 든 등롱꾼이 종종걸음을 재촉합니다. 전깃불이 없던 시절, 손에 들린 흔들리는 초롱은 깜깜한 밤길을 안내하는 길잡이였습니다.

초롱은 초나 기름등잔을 넣어 불을 밝히는 휴대용 등을 아우릅니다. 주로 매달아놓거나, 손잡이를 달아 들고 다니며 거리를 밝히곤 했습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초롱은 한 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박등·연꽃등·칠성등·가마등·수복등·태평등·종등·항아리등 등 형태에 따라 각양각색 초롱이 빛을 내주었다네요. 초롱은 본래 왕실이나 양반만 쓸 수 있는 귀한 기물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이익李瀷 선생이 초롱을 새로 고안하기 전까지는요. 밀랍이 귀하고 값이 비싸 구하기 힘든 점을 감안해, 댓살로 틀을 하고 깁을 씌어 내부에 기름등잔을 넣은 등롱을 만들었고, 혼례에 사용할 것을 장려했다고 합니다. 실제 종가(종로)에는 등 파는 집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색찬란한 등을 진열해놓은 모습은 지금으로 치면, 각종 디자인의 전등을 판매하는 을지로의 조명 가게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상단에는 붉은 깁을, 하단에는 푸른 깁을 두른 청사초롱은 혼례식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양의 기운을 뜻하는 홍색과 음을 상징하는 청색을 조합한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며 신랑각시의 조화로운 새 출발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12월의 국립극장은 청사초롱의 영롱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마당놀이패 만나러 오시는 길을 환히 밝히고 있죠. "오늘 오신 손님들, 오늘 오신 손님네 반갑소." 유쾌한 기운 가득한 마당놀이 무대 위에도 수많은 청사초롱이 관객을 반깁니다. 꼭 경사난 잔칫집 같습니다.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로 한 해 시름 다 날려버릴 기회, 초롱불 가득한 겨울밤 산책, 어떠신가요.

글 **이정연** | 사진 **전강인** | 청사초롱 **미티테이즈**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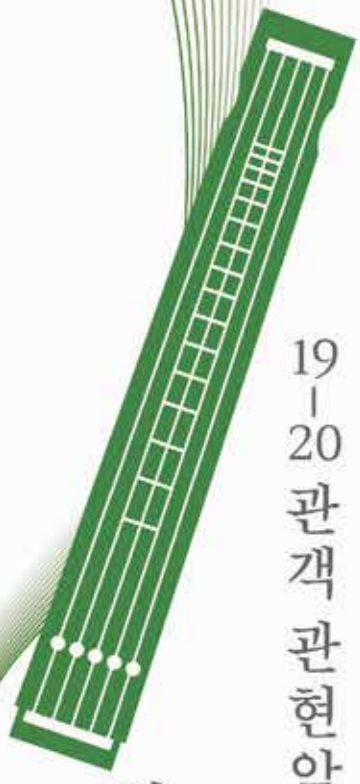
관객음악학교

참가자 모집

아마추어 관현악단 5기

19-20 관객 관현악단

악기포커스 - 해금



국립극장 | 국립국악관현악단

아마추어
관현악단 5기
모집기간
2019.9.23
-2020.1.31

19-20
관객 관현악단
모집기간
2019.9.23
-2020.1.31

악기포커스
- 해금
모집기간
2019.9.23
-2019.10.11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마당놀이,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닮았다

마당은 우리네 공연 문화의 주된 공간이었다. 신라 시대부터 시작한 남사당 같은 유랑 놀이패가 공연이자 놀이를 한바탕 펼치던 곳이 바로 마당이다. 잔칫집, 기생집 그리고 장터까지 마당이 있는 곳은 언제든 놀이가 벌어지는 공간이 됐다. 하지만 마당은 본래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놀이 공간으로 변신하는 지점에 독특한 특징을 부여했다. 연희자와 관객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어지지만, 그것이 본래 공유되던 공간이었다는 점이 공연에도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류와 소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연 형식으로 일컫는 '마당놀이'라는 지칭에는 이런 공연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부여한 특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마당놀이'라는 명칭은 1981년 MBC가 마당놀이 '허생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물론 1970년대 전통연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마당극이 연극 양식 중 하나로 등장한 바 있지만, 민주화운동 시절 주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냈던 마당극은 199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사라졌다. MBC가 시작한 마당놀이 '허생전'은 창사 20주년 기념 공연 형태로 등장했지만 의외로 관객 반응이 뜨거웠고 이를 방송으로도 내보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진보적 연극운동의 성격을 띠던 마당극과 달리 대중성을 추구하던 마당놀이는 당대 연극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특유의 풍자와 해학으로 답답한 시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

마당놀이는 마당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소통하며 시대의 현실을 끌어와 꼬집고 비틀어내는 형식 그 자체로 시대를 앞서간 면이 있다. 지금이야 인터넷·모바일상에서 댓글같이 덧붙이는 글로 쌍방향 소통이 당연해졌고, 이를 통해 이른바 '디지털 민주화'가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일상의 단계에서까지 이뤄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과거 답답한 시국에 대중과 함께 어우러져 부조리한 세상을 비틀어 억눌린 감정을 표출해내는 마당놀이는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감정의 분출구이기도 했다. 디지털이 제공하는 마당에서 1인 미디어들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한바탕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많은 이들의 공유와 공감을 통해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현재를 떠올려보면 마당놀이의 참여적 성격이 얼마나 앞서간 것인지 확인하게 된다. 일찍이 마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관객과 연희자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춤추며 웃고 우는 마당놀이는 형식적 틀이 우리 시대의 미디어와 많이 닮았다. 마당을 공유하고 연희자들과 현재의 현실을 공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 이런 특징은 과거의 형식을 계승해낸 마당놀이가 현재의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는 중요한 이유다.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칼럼니스트. 문화 속에 담긴 현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이고, 다양한 방송·강연 활동을 한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0
지금, '춘풍이 온다'가 있기까지
또 한바탕 놀아보시게나!

14
춘풍이네 캐릭터 엿보기
프사 읽어드립니다

18
국립극장 마당놀이 BEST 4
함께 논 벗의 생각은 어떠한가?

20
마플릭스Maflix로 다시 보는 마당놀이
마당놀이가 온다




USB

지금, '춘풍이 온다'가 있기까지

또 한바탕 놀아보시게나!

다시 '춘풍이 온다'가 온다! 1980년대부터 오늘까지 '지금, 여기'를 신랄하게 비틀며 박수 치고 싶은 관객, 놀고 싶은 관객을 주인공으로 모신 그 마당놀이다. '춘풍이 온다'를 기다리며 시대를 풍미한 장르, '마당놀이'를 이야기해본다.



2018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떠들썩한 길놀이와 고사, 본놀이를 거쳐 배우와 관객이 한데 어우러져 흥성거리는 뒤풀이로 이어진다. 아마도 몸속 DNA에 탑재돼 있을 전통 음악과 춤사위가 되살아나며 관객은 풍자와 해학의 난장 속에서 한바탕 스트레스를 풀고 돌아간다. 이것이 1980년대 이래 한국 공연계에서 중요한 방점을 하나 찍은 장르, 마당놀이다.

1981년 최초의 마당놀이 '허생전'

물론 전통예술에 맥이 닿아 있지만, 마당놀이의 효시는 1981년 연출가 손진책이 처음 막을 올린 '허생전'이다. MBC 창사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문화체육관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연기와 재담, 전통 창唱과 춤사위가 한데 어우러진 '한국형 뮤지컬 놀이극'이라 정의할 수 있었다. 당시 극작가 김지일이 표재순 전 MBC 부국장에게 '마당극' '마당놀이' '모듬놀이'라는 이름을 제안해 표 부국장이 '마당놀이'를 골랐다고 한다.

같은 해 큰 규모로 여의도에서 치러진 '국풍 81'처럼, 마당놀이도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진희 전 MBC 사장(이후 문화공보부 장관)의 지시로 방송이 편성되면서 전국적인 인기를 끈 연중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된다. 연출가 손진책은 이렇게 회고한다. "이 사장은 절대 웃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공연 중에 힐끗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웃고 있었다. '아, 이거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MBC는 이듬해인 1982년 손진책이 소속된 극단 민예에게 제작을 맡기며 마당놀이를 계속했다.

명절 필수 방송, 관객은 인산인해

극단 민예의 뒤를 이어 1987년 연출가 손진책이 새로 창단한 극단 미추가 마당놀이를 이어받았고, 극단 미추 단원인 윤문식·김성녀·김종엽은 '마당놀이 인간문화재'라고까지 불리며 스타 자리에 올라 전국을 휘어잡았다. '심청전' '춘향전' '흥부전' '놀부전' '홍길동전' '토선생전' '변강쇠전' 등을 비롯한 숱한 마당놀이 공연이 이어졌고, 전성기엔 해마다 20만~30만 명이 봤다. 2010년까지 30년 동안 마당놀이의 총 관객은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선 당연히 마당놀이를 방송했고, 공연장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차를 탄 배우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손진책의 회고에 따르면 "마당놀이에서 사회 풍자를 하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방송에서 자체 검열을 할 정도였다"라고 한다. 그는 제5공화국 시절 '별주부전'에서 '독재를 일삼는 문어 대왕'을 등장시키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980년대 말부터 극단 미추와 MBC는 마당놀이에 대한 견해차로 갈라설 조짐을 보이다, 2001년 상표권 소송을 벌이며 결별했다. MBC는 1994년 이미 상표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미추 측이 '마당놀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명칭이 '마당에서 하는 놀이'라는 보통명사이자 예술 장르라는 미추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쪽이 모두 마당놀이를 무대에 올렸으나 '정통'은 역시 윤문식·김성녀·김종엽이 출연한 미추 쪽에 있었다.

4년 공백기와 국립극장에서의 부활

그러나 마당놀이는 2010년 30주년 기념 공연인 '마당놀이전'을 끝으로 중단된다. 손진책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30년을 하고 나니 매너리즘에 빠진 게 느껴졌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닫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공연 장르 자체를 없앤 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마당놀이 스타 3인'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해 세대교체 자체가 어려워진 역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로부터 4년 동안은 마당놀이 역사의 공백기였다. 2014년 마당놀이는 '국립극장 마당놀이'로 되살아났다.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이 기획공연으로 마당놀이를 극장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손진책의 아내이자 왕년의 마당놀이 스타인 김성녀가 이때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있었다. 손진책이 다시 연출, 김성녀가 연희감독을 맡고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립극장 소속의 국내 최고 기량의 단체들이 가세했다.

지나친 관제官製 기획 아닐까? 남산 중턱 높이만큼이나 일반인에겐 생소한 국립극장이 마당놀이의 새 무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손진책은 "국립극장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무대와 객석이 혼연일체 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은가"라고 말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개막작 '심청이 온다'(2014·2017)부터 '춘향이 온다'(2015) '놀보가 온다'(2016) '춘풍이 온다'(2018·2019)까지, 새로운 국립극장 마당놀이는 99퍼센트에 가까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연말연시 '필견必見' 공연으로 자리 잡았다.



2006 극단 미추 '변강쇠전'



1998 극단 미추 '봉이선달전'



2005 극단 미추 '마포황부자'



2000 극단 미추 '홍길동전'



2007 극단 미추 '쾌걸박씨'



'지금, 여기'의 날 선 풍자가 '존재 이유'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작곡가 박범훈·안무가 국수호·극작가 배삼식 같은 국내 최고 제작진의 실력도 물론 출중하지만, 아무래도 앞서 제5공화국 때 문어 대왕을 등장시킨 것 같은 '풍자'의 날이 여전히 날카로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평이다. 이것은 '2019년에도 여전히 마당놀이가 유효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대답과도 통한다.

30여 년 동안 마당놀이의 인기는 그저 고전의 스토리를 맛깔나게 풀어내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을 '풍자諷刺'한다는 데 있었다. 풍자란 무엇인가. '무엇에 빗대어諷 정곡을 찌른다刺'는 뜻이다. 따라서 그 '찌르는 날'이 얼마나 날카로우냐가 대중의 호응도를 결판 짓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손진책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말을 한다. "마당놀이의 '마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멍석을 깔아놓는다'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 '놀이'란 무엇인가? '즐겁게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 '인간다운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이다. 당연히 작품 속에 사회문제들이 함축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식에서는 전통, 내용에서는 현재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지점, '지금, 여기'를 신랄하게 비트는 대목이야말로 옛 관객과 새로운 관객이 모두 열광한 부분이었다. '심청이 온다'에서는 심봉사가 "청아, 땅콩은 접시에 담아 왔느냐?"라며 개막 직전에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을 풍자했고, '소녀 가장 알바생'으로 등장한 심청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캐안습, 개짜증, 대-박"이라고 외쳤다. '놀보가 온다'에선 놀보가 탄 박에서 난데없이 '최순실'이 등장해 관객의 배꼽을 뺐다. 필자는 실제로 이 대목에서 글자 그대로 객석 밑으로 넘어져 '데굴데굴 구르는' 관객을 목격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립극장표 마당놀이'가 옛 명성을 완전히 되찾을 정도로 소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연의 질은 확보됐지만, 문제는 옛 마당놀이 시절의 야성野性이다. 아무리 마당놀이에 맞춘 가설무대와 객석을 설치한다고 해도, 아직 힘 빼고 모든 걸 내려놓은 뒤 즐겁게 춤출 수 있는 '마당'이란 공간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스타 시스템'의 부재와 종종 풍자의 날이 다소 방향을 잃는 현상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당놀이 신작, '춘풍이 온다' 시즌2

12월 12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서 두 번째로 개막하는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는, 우선 지난해 첫 시즌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던 풍자의 질이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부쩍 늘어난 풍자의 소재들을 새롭게 극 곳곳에 배치하리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공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캐스팅이다. 춘풍 역에 지난 시즌 호평받은 김준수와 더불어 유태평양이 더블캐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김준수가 미끄러지듯 유려한 풍류남아 춘풍이라면, 유태평양은 끈적끈적 능글맞은 허랑방탕 춘풍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학 넘치는 연기라면 따라갈 자가 없는 서정금이 다시 오목이 역을 연기하고, 마당놀이 전설의 삼인방과 30년 고별무대에도 섰던 민은경이 오목이 역으로 합류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연희계에서 잔뼈가 굵기로 유명한 정준태는 '꼭두쇠' 역으로 이 작품에 새롭게 합류한다. 대세 트로트 가수 송가인도 한때 단원으로 있었던 '광대놀음 떼이루'의 대표를 맡은 인물이 바로 정준태다. 이 밖에 관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국립창극단의 김미진, 객원배우 홍승희를 포함해 34명의 배우와 20명의 연주자가 회심의 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춘풍이 온다'가 공연된 달오름극장 무대에 올해도 마당놀이가 오른다. 무대 위에 설치한 가설 객석 덕에 출연진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은 마당놀이 전용 극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글 **유석재** 1990년대 초부터 공연 마니아로서 대학로를 들락거렸고,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2014년부터 3년 동안 공연 담당 기자로 일했다. 지금은 다시 초야의 관객으로 돌아와 종종 공연장에 출몰하고 있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날짜 2019년 12월 12일~2020년 1월 26일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춘풍이네 캐릭터 엿보기

프사 읽어드립니다

메신저 앱의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는
기분과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개성 강한 '춘풍이 온다' 식구들이 메신저 앱을 꾸몄다면,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엉뚱한 상상으로 그들의 속내를 읽어본다.

국립극장 마당놀이패를 대표해서 이 꼭두쇠가 큰절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깨톡'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깨톡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 훤~히 보인다니! 이게 바로 신문물이 아닌가. 그럼 에헴, 여보시게(소곤소곤) 우리 '춘풍이 온다' 등장인물들의 깨톡을 함께 엿보는 게 어떻소?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끈따끈한 소식을 들어봅시다. 자, 따라와 보시오!



정준태

춘풍

여자 좋아하는 풍류남아답게 깨톡의 배경은 술상에, 프로필 사진은 아리따운 미인의 뒷모습이라. 춘풍은 옹알이할 적부터 눈짓으로 썸을 타고, 말문 트이자마자 은근슬쩍 작업 걸고, 걸음마 떼자마자 양다리를 걸쳤더랬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그는 반쯤 썩은 새싹이로구먼! 결국 바람만 잔뜩 들어 봄바람처럼 노닐더라. 닷새 걸러 큰 잔치, 사흘 걸러 작은 잔치, 하루도 안 거르고 질펀하게 풍악을 울리며 호호탕탕 놀아나는 이춘풍의 모습을 보셨는감? 1년 365일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이 품 저 품 넘나들며 단꿈 꾸는 그가 마지막으로 벌인 잔치는 바로 빚잔치! 봄날은 짧기 마련. 결국 평양기생 추월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거지꼴로 살아가는데….





오목이

조선 제일가는 여장부가 바로 오목이 아니겠는가. 말이 안 통하는 남편 춘풍에게는 주먹이 더 통했나 보오. 야금야금 춘풍에게 힘을 쓰다 보니 어느새 권투가 취미가 돼버린 건지, 프사가 권투 장갑이로구먼. 방탕하게 놀던 춘풍이 집안 살림을 거덜 내자, 오목이는 춘풍의 어머니 김씨와 함께 '봄바람표 맞춤집'을 개업했지. 봄바람표 맞춤집에 조선의 힙스터들이 몰려들고, 하나둘씩 옷을 맞춰 갔소. 장사가 불처럼 일어나니, 춘풍 집안이 넉넉해지고 가세가 풍족해지더라. 그런데 춘풍의 잘못으로, 오목이가 기껏 일으켜놓은 집이 다시 풍비박산 위기에 처했지 뭔가. 춘풍과 장난처럼 맺어졌어도 부부의 연이오, 부부의 연은 천륜이라. 그가 종살이한다는 소식을 들은 오목이는, 남장 비장으로 변신해서 춘풍을 구하러 떠나는디…!



추월

저, 추월이 프사 좀 보소. 엽전이 아주 그득하구먼. 추월이가 생각하기로는 세상 제일 으뜸이 바로 '돈'이라. 기와집에 돈다발 껴안고 잠드는 삶이 최고가 아니겠소. 뭇 사내 마음을 앗아가면서, 주머니에 든 돈까지 뺏어가는구려. 평양에서 내로라하는 기생 추월이가 "밤이면 밤마다 소녀, 꿈에서 이춘풍 나리를 뵈었나이다"라고 춘풍에게 거침없이 작업 멘트를 날리자, 춘풍은 홀라당 넘어가버렸지. 하긴, "어마! 이를 어째, 현기증!" 하며 아련하게 쓰러지는 추월의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을 터. 단숨에 이춘풍을 낚아채고, 모든 게 추월의 뜻대로 굴러가는디…. 추월의 치마폭으로 쌀 몇 백 석, 피륙 몇 백 필, 돈 몇 천 냥이 술술 쏟아지는구먼!







김씨

춘풍의 어머니 김씨가 정화수를 떠놓고 달을 보며 춘풍의 무사 귀환만을 바라는구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나 정신을 차릴까, 저제나 철이 들려나. 꾸짖으면 저만치 더 엇나가지 않을까(더 엇나갈 것도 없어 보이지만). 자나 깨나 아들 걱정을 하는구먼. 김씨의 속으로 낳았으나, 그 속을 알 수 없는 춘풍은 못나도 그녀의 자식이고, 잘나도 그녀의 아들이라. 춘풍이 재산을 들고 평양으로 떠난 후 감감무소식이었는데, 남의 집 종살이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전해 들었지. 아들 저지른 잘못 어찌 모른 체하리오. 이번 기회에 춘풍의 못된 버릇을 뿌리째 확실히 뽑자고 결심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어디 한번 지켜볼까?



그림 **이승정** 일러스트레이터

국립극장 마당놀이 BEST 4

함께 논 벗의 생각은 어떠한가?

2014년 '심청이 온다'를 시작으로 신명 나게 국립극장 마당놀이가 펼쳐졌다. 그간 '심청이 온다' '춘향이 온다' '놀보가 온다' '춘풍이 온다' 중 3편 이상 관람한 단골 관객에게 물었다. 장안에서 풍류깨나 안다고 소문난 100여 명의 손님이 뽑은 마당놀이 베스트 4를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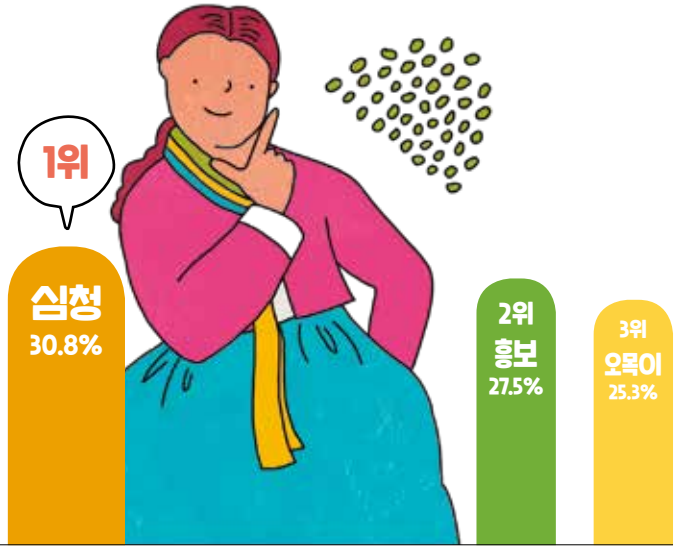
니 맴이 내 맴이여~ 가장 맴 쓰이는 인물

1위 생계형 아르바이트족 **'심청이 온다' 심청**

2위 가난한 가장 **'놀보가 온다' 흥보**

3위 걸크러시의 원조 **'춘풍이 온다' 오목이**

가장 공감 가는 인물로 심청과 흥보가 1, 2위를 다퉜다.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심청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인물이다. 고달픈 삶에 지쳐 현실도피증을 앓는 안타까운 주인공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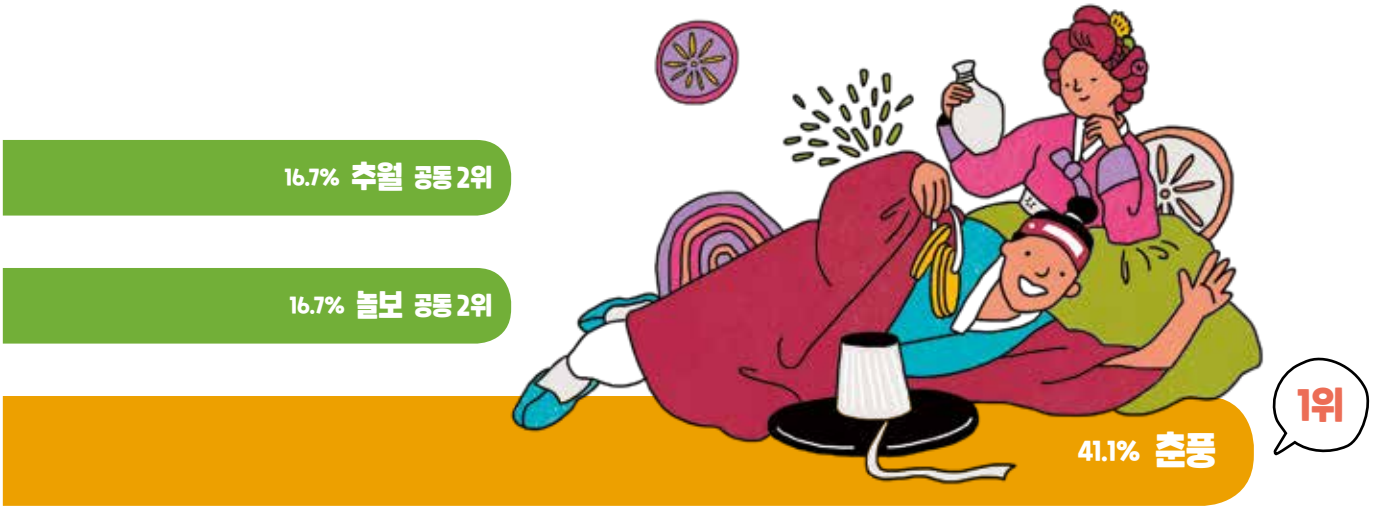
밉상 화상 오만상, 애증의 인물

1위 집안 재산 거덜내는 풍류남아 **'춘풍이 온다' 춘풍**

공동 2위 조선 시대 원조 팜파탈 **'춘풍이 온다' 추월**

공동 2위 멍충미 뿜뿜! **'놀보가 온다' 놀보**

한 푼이라도 박박 긁어모아 주색잡기에 쓰는 춘풍. 집안 재산 다 써서 없애고, 결국 종살이를 하게 된 춘풍이 애증의 인물 1위를 차지했다. 팜파탈 추월과 심술궂은 놀보가 뒤를 이어 같은 득표수로 공동 2위!



속 시원한 사이다 대사 넘버원

1위 놀보: "이거 냄새가 난다, 냄새가. 그랑께 뭐여, 자네가 그 비…."
마당쇠: "비! 든! 실세여! 워떤 놈이든 걸리기만 해봐! 이 빗자루로 갱 쏴악~ 쓸어벌라니까!" **'놀보가 온다'**

2위 춘향: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세상에, 흙수저 물고 태어나, 소녀 가진 것은 오로지 마음뿐이라. 이 마음 하나만은 소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춘향이 온다'**

3위 달: "자네 어머니 부탁으로 초과근무했잖여! 초과근무수당!"
춘풍: "벌써 52시간이 지났나? 옜다!" **'춘풍이 온다'**

갑갑하고,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대사 넘버원은 '놀보가 온다'의 "비! 든! 실세"가 뽑혔다. 마당놀이의 꽃은 바로 날카로운 풍자. 예리하고 화끈한 현실 풍자야말로 마당놀이를 보는 재미 중 최고로 꼽힌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색 이벤트

1위 관객들이 무대 위로 올라 배우들과 하나로 어우러져 함께 신명 나게 추는 춤판! **뒤풀이**

공동 2위 공연 시작 전 노래하고 가위치는 배우들에게 엿 사먹기는 마당놀이만의 특별한 시그너처! **엿 사먹기**

공동 2위 극장 사방에서 배우들이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 나와 흥겨운 춤판·소리판으로 채우는 무대 **길놀이**

마당놀이를 즐겨 본 단골은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벤트로 뒤풀이를 꼽았다. 관객과 배우가 무대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신명 나게 춤판을 벌이는 순간이다. 높은 득표수를 기록한 뒤풀이를 보고 알 수 있듯, 마당놀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극임이 분명하다.

그림 **이승정** 일러스트레이터

마플릭스Maflix로 다시 보는 마당놀이

마당놀이가 온다

마플릭스Maflix의 개봉을 기대하시라.
영화·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넷플릭스'가 있다면,
국립극장「미르」에는 마당놀이를 다시 볼 수 있는
'마플릭스'가 있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조연출만 6년!
자칭·타칭 마당놀이 전문가가 읊어주는
마당놀이 다시보기! 지금, 재생을 시작한다.



심청이 온다 2014 | 해오름극장, 2017 | 하늘극장

자, 본격적으로 심청이 이야기로 신명 나게 놀아보자. 마당놀이패가 객석 사이를 헤치고 무대 위로 올라오는구나. 북 치고, 장구 치고, 소고까지 둥둥 치며 관객과 하나 돼 노니니, 그 흥겨움이 극장을 뚫을 정도다. 달큰한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며 정성껏 고사를 지내고, 눈먼 봉사들이 탁탁 지팡이 치며 무대로 올라오면, 드디어 '심청이 온다' 개봉박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에 매진해 심봉사를 부양하던 생계형 효녀 심청. 어느 날 갑자기 심봉사의 말실수로 청천벽력같이 빚이 뚝 떨어진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빚까지 갚아야 한다니. 결국 심청은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쳐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다짐한다. 비록 소셜미디어에 허세 글이나 올리는 철없는 아비 때문이지만, 사실 심청의 부모 섬기는 지극한 효심과 여기에 약간의 현실도피가 더해진 결정이었다.

한편 딸을 잃고 슬픔으로 살아가던 심봉사는 아랫마을에 홀로 사는 뺑덕을 후처로 들인다. 뺑덕어멈은 심청이 몸던져 받은 돈을 피자값·마사지값·카드값으로 날려버렸다.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된 심봉사, 그때 관가에서 맹인잔치에 참석하라는 소식을 들었다. 잔치의 마지막 날, 가까스로 맹인잔치에 도착하는데, 눈앞에 심청이가! 죽었던 심청이가 살아있단 말에 심봉사 두 눈을 번쩍 뜬다. 이 대목을 주목하시라. 늘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던 장면인데, 2017년 어느날…. 그날따라 극장이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조연출인 나도, 다른 스태프와 배우도, 심지어 관객도 어리둥절했다. 알고 보니 한국어학당에서 온 외국인 관객들이 사투리가 너무 어려웠던지, 심봉사가 눈뜬 대목에서도 조용했던 것이다. 2014년 국립극장 마당놀이의 첫 문을 연 '심청이 온다'는 2017년 하늘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공연했다. 변화한 사회 흐름에 맞게 진화한 사이다 풍자로 마당놀이는 역시 살아 있는 공연임을 증명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춘향이 온다 2015 | 해오름극장

해오름극장 로비 한복판에 떠억하니 나무로 만든 감옥이 자리했으니, 춘향이를 가둬둔 옥을 고스란히 재현한 것이었다. 관객들 너도나도 옥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 갔다. 옥중 이벤트로 한바탕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 어디 한번 '춘향이 온다'를 시작해볼까? 이때가 어느 때인고, 숙종대왕 즉위 초였다.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 하는 기생이 있으되, 일찍이 성가라 하는 양반과 인연을 맺어 딸 하나 낳았으니, 그 이름하야 춘향이라. 어느 해 오월 단옷날, 춘향과 몽룡이 첫눈에 서로 이끌려 마음을 빼앗겼다. 몽룡은 여기도 춘향, 저기도 춘향, 눈뜨면 춘향, 감아도 춘향이가 보인다며 방자를 앞세워 야밤 산행길을 떠났다. 방자네 집 강아지로 변신해 길 떠난 몽룡의 발걸음이 가닿은 곳은 춘향이네 집. 백년해로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몽룡의 부친이 동부승지돼 한양으로 올라가니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별했다. 한편, 남원에 신관 사또가 부임하는데 그 이름은 변학도. 재물 밝히고, 색밝히고, 고집불통에 어찌나 싸납고 독한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허는 일이 기생점고였다. 허나 은근 순정파 변학도는 오직 춘향에게만 순정을 다 바치는데 당찬 그녀의 거절에 그의 춘향에 대한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다. 이때 한양에 있던 이몽룡은 장원급제해 내려오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몽룡과 방자가 나타나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

"춘향아, 잘 있어. 행복해야 돼. 안녕.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외치며 변학도는 영영 떠났다.

한편 극 후반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으니, 그 이름은 홍길동. '홍길동전'의 그 홍길동이 '춘향이 온다'에 잘못 찾아온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는 정말 모르는지, 항상 장소를 잘못 찾아오는 마당놀이 단골 인물이로다. 따끔하게 등장인물에게 일침을 날렸던 홍길동은 '춘향이 온다' 관객들에게 '내년에 봅시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놀보가 온다 2016 | 해오름극장

놀보의 심술로 집에서 쫓겨난 흥보가 쫄쫄 굶어 말라죽은 삭정이 같은 모습일 거라 생각하겠지만, 속단은 금물! 우리 흥보는 '나는 살이 찐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부황이 뜬 모습'이라며 통통한 몸매로 당당히 놀보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놀보는 보리를 주기는커녕, 보리타작을 하고 흥보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놀보가 온다'에는 유독 에피소드가 많았다.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또다시 홍길동. 그가 놀보의 못된 심성을 고치기 위해 촛불 들고 하늘을 날아왔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멋지게 착지하려는 순간, 줄이 꼬여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다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줄이 멈추니 하늘에 대롱대롱~ 엉덩이는 치켜 올라가고 두 발은 갈 길을 잃었다. 하지만 놀보를 혼내는 기세만큼은 하늘을 찔렀다.

또 다른 사건도 있다. 홍길동이 지나간 후 출두한 암행어사. 민심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관객석에서 튀어나오는 한마디. "저 놀보 때려죽일 놈!" 재밌어하는 관객들, 다 같이 놀보 때려죽일 놈을 외치는데, 한순간 놀보가 '국민 때려죽일 놈'이 돼버렸다.

이뿐인가. 데구루루, 구르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린가 헤매던 관객이 있었으니. 놀보가 제비의 다리를 거짓으로 고쳐주고 받은 박을 타자, 갑자기 최순실이 나타나는 장면이었다. 관객들은 그 순간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때 웃으며 데구루루 계단을 구르는 한 관객. 덩달아 객석에 웃음이 퍼지고, 민망한 관객이 웃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지만 쉽사리 찾아가지 못했다. 그 모습이 재밌어 관객들이 또 한참 웃었다.

신나게 놀보를 혼낸 어느 날. 뒤풀이를 끝낸 후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연세 많으시고 거동조차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마당놀이패의 손을 꼭 잡았다. "3년째 오는데 오늘도 너무 잘 보고 가네, 고맙소." 두 손을 꼭 잡고, 살포시 건네주신 호박 맛 사탕. 그날 받은 사탕은 '놀보가 온다' 분장실에 고이 놓여 공연이 끝날 때까지도 배우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했다고 한다.



M



춘풍이 온다 2018·2019 | 달오름극장

국립극장 마당놀이 5년째,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으로 '춘풍이 온다'는 달오름극장에서 공연했다. 객석이 4면에서 2면으로 바뀌고 등·퇴장로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처음 연습할 땐 4면 무대에 익숙한 배우들이 벽을 보고 연기하기도, 늘어난 등·퇴장로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출연하기도 했다. 허나 한껏 가까워진 관객들과의 거리 때문에 설렘으로 가득한 배우들, 더욱 더 디테일한 연기를 위해 밤낮없이 연기에 몰두하는 것이었다. 공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십 명의 마당놀이패 출연진과 복도까지 놓인 소품들, 분장실을 채운 의상, 관객석의 관객이 더해져 달오름극장은 그야말로 마당놀이로 꽉꽉 채워졌다. 해오름극장보다 작아진 극장에 너도나도 걱정이 많았지만, 그 에너지만큼은 컸다.

이제 '춘풍이 온다'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겠다. 한양 땅에 사는 난봉 난봉 팔난봉, 천하의 난봉꾼 이춘풍. 그 이춘풍, 사주에 도화살이 겹겹이 끼었던지, 팔자에 역마살이 골골이 풍겼던지, 한 해 두 해 자라나며 철들기는 고사하고 난봉으로 날을 샜다. 춘풍의 어미 김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엇나가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춘풍의 몸종 오목이와 결혼을 시켰다.

우리의 오목이는 대표적인 걸크러시 캐릭터다. 춘풍이 몰카를 찍으러 온 줄 알고 그를 때려잡기도, 정신 못 차리고 평양으로 떠나려는 춘풍을 매질하기도 한다. 결국 추월이네 종살이를 하고 있는 춘풍을 구하기 위해 남장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떠나는 오목이는 곤경에 처한 춘풍도 구하고, 추월에게 추징금 5만 냥도 받아내기도 하는데. 한양에 돌아와서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춘풍을 다시 매질하기도 했다. 허나, 목욕재계하고 싹싹 비는 춘풍을 오목이 너그러이 용서하고, 그도 감읍해 못된 옛날 버릇을 깨끗이 떨쳤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캐스트도 싹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라.

글 **서정완** 초연부터 빠짐없이 함께해온 자타 공인 마당놀이 전문 조연출이다. '모던타임즈' '토끼전' '데미안'을 연출했으며, 독창적인 시각으로 작품의 해학미를 잘 살린단 평을 받는다.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극본 김지일
각색 배삼식
연출 손진책
작곡 박범훈
안무 국수호
연희감독 김성녀
2019.12.12-2020.1.26
국립극장 달오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VIEW

26
프리뷰 1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8
프리뷰 2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정광수제'

30
리뷰 1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I
'3분 관현악'

34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집 1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별 대담

38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집 2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무대디자인'展

P RE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메리 국악 크리스마스

국악기 연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영화의 감동을 음악으로 다시 소환하는 특별한 경험.
'윈터 콘서트'는 익숙함 속에서 발견한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각양각색 콘서트가 열린다. 2018년에 시작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윈터 콘서트' 역시 연말을 맞이해 열리는 공연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다양한 행복과 즐거움을 전하는 음악회로,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준비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함께하며, 국악 관현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영화음악·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조화로운 콘서트를 선보인다. '윈터 콘서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특별한 연말 공연으로 탄탄히 자리매김 중이다.

90분간의 콘서트는 5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된다. 서양음악과 국악이 만날 때 주로 한두 개의 국악기가 협연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윈터 콘서트'는 20여 개의 동서양 악기를 빼곡하게 무대에 채



2018 '윈터 콘서트'

워 넣는다. 거문고와 비올라가, 대금과 트롬본이, 꽹과리와 드럼이 하나의 곡을 연주한다. 공연은 익숙한 곡에 새로운 요소를 더함으로써 편견을 깨고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또한 최고 게스트와의 협연도 준비돼 있다. 올해는 경기민요를 모티프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깨는 이희문과 '놈놈'(김주현·조원석)이 '난봉가' '청춘가' '이리렁성 저리렁성' 등의 곡으로 흥겨운 공연을 선물한다. 이희문과 '놈놈'은 간드러지는 경기민요 특유의 창법에 더해진 독특한 외형의 퍼포먼스로 이미 다수의 공연과 방송에서 특별함을 뽐내왔다. 흥에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인 만큼 이번 공연이 후끈 달아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희문과 '놈놈'의 신명 나는 무대뿐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테이의 무대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초청된 테이는 발라드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는 대표곡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로 데뷔해, 5주 연속 음악 방송 1위를 거머쥐며 단숨에 발라드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이번 공연에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와 'Desperado' 'The christmas song' 등을 노래한다. 대중의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나 팝은 국악기 반주 위에서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낼 것이다.

'윈터 콘서트'가 특별하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필름 콘서트'다. 필름 콘서트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을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실제 연주하며 실시간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이다. 영화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한 형태의 이러한 콘서트는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돼 최근 공연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연되는 '윈터 콘서트'는 시즌에 맞춘 영화를 선정해 10분가량 하이라이트 연주를 선보인다. 지난해 준비한 영화 '나 홀로 집에'는 색다른 연주가 주는 신선함뿐만 아니라 관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했다. 올해의 영화는 '러브 액츄얼리'. 영화는 언어를 뛰어넘는 이성 간의 사랑부터 긴 세월을 함께 보내온 로커와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아낸다. 국악기로 표현할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기대해도 좋겠다.

결국 '윈터 콘서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악과 양악이 적절히 믹스매치된 편곡 그 자체에 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작곡가 이지수가 편곡에 참여한다. 서양음악을 전공한 이지수와 국악의 만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한국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편곡해 피아노 연주로 담은 '아리랑 랩소디'로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15년에는 국악의 전통 리듬에 풍부한 클래식의 화성,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더한 앨범 '아리랑 콘체르탄테'를 발매해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구현해 선보였다. 영화 '올드보이'와 '건축학개론' 등 다양한 영상 매체의 음악을 담당하며 끊임없이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온 그의 행보가 국악으로까지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악기의 쓰임과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작곡에서 편곡, 실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음악 전체를 관장하는 이지수의 작업 방식이 콘서트에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광고·영화 등 영상예술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영화감독 김형석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은다. 그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필름콘서트 '여우락 영화관'(2015·2016)을 연출해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호평받은 바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윈터 콘서트'에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희문


테이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를 담아내는 새로운 시도가 젊은 국악인들을 중심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자람과 박인혜, 이승희 등의 여성 소리꾼은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창작 판소리를 꾸준히 만들고 있으며, 국악 그룹 이날치는 철저한 국악적 테크닉 위에 이디엠EDM 감수성을 얹어 완벽하게 다른 판소리 '수궁가'를 선보이기도 했다. 자신을 '모던 가야그머'라 칭하는 가야금 연주자 정민아의 노래를 비롯해, '어벤져스'나 '알라딘' 같은 영화의 테마곡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아티스트들도 있다.

'전통'이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국악은 여전히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싸운다. 그럼에도 지금의 시대와 감정을 담아내는 작업은 꾸준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 새로운 국악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윈터 콘서트'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국악으로 듣는 크리스마스 캐럴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글 **장경진** 공연예술을 기록하는 13년차 공연 칼럼니스트. 2019년 6월부터 공연예술 월간지 '여덟 갈피'를 발간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날짜 2019년 12월 19~20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5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P RE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정광수제**

공력 있는 소리로 지새우는 송년의 밤

2019년의 끝자락, 안숙선 판소리의 정수가 스민 토끼와 별주부의 기략 다툼을 들으며 귀를 밝혀본다.

이 시대 제일가는 명창을 꼽으라면 누구나 안숙선을 떠올릴 것이다. 대중적 인기에서도 그렇지만 그이가 쌓아온 소리 길의 진정성 때문에 이 같은 평가는 자연스러워졌다. 안숙선은 맑으면서도 곰삭은 성음, 명료한 발음, 한국적 몸짓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명창으로 상징된다. 질러내는 소리는 가슴이 아릴 정도로 호소력 있으며, 적당히 쉰 목소리는 그이의 판소리 공력을 짐작하게 한다. 부채를 펼친 자태도 기품이 있고, 우아한 발림도 아름다워서 작은 체구로 온 무대를 휘어잡는다.

안숙선 명창은 남원 출신이다. 전통음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전통예술을 가까이했고, 판소리와도 익숙했다. 안 명창은 '흥부가'의 대가 강도근 명창에게 배우며 소리에 입문했다. 그리고 50대가 돼 또다시 강도근 선생을 찾아, 어린 시절 배운 그 '흥부가'를 공부했다.

20대 초반 서울에 온 안숙선에게 가야금과 판소리를 가르친 이는 박귀희 명창이다. 안숙선은 박귀희 선생을 회고하면서, "내게 공기 같은 존재셨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국악인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고, 항상 편안하게 대해준 스승이다"라고 말했다. 국악계에는 한번 맺은 사제 관계는 평생 지속된다는 암묵적 질서가 있다. 박귀희 명창은 안 명창이 판소리 재목임을 알아채고, 소리 연마를 위해 김소희 명창에게 보냈다. 안 명창은 김소희 명창에게서 만정제 '춘향가'와 '흥부가'를 배웠다. 김소희 명창은 단정하면서도 엄격한 분으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안 명창이 가진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리의 토대가 됐다. 안숙선은 박봉술 명창을 찾아 동편제 '적벽가'도 배웠다. 당시만 해도 '적벽가'의 텍스트



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전쟁과 영웅들의 세계를 한문투로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여류 명창들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럼에도 박봉술 명창이 펼쳐 보이는 동편제 특유의 웅장함에 매료돼 특히 애착을 가지고 배웠으며, 성우향 명창에게서는 '심청가'를 배우며 자신의 소리 세계를 확장하며 완성해왔다.

'수궁가'는 1990년대 말, 정광수 명창에게서 배웠다. 필자는 민속음악 연구의 개척자인 이보형 선생을 따라 굴레방다리 아래에 있는 4층 건물의 정광수 명창 학원으로 면담 조사를 간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정광수 명창에게 '수궁가'를 배우고 있던 안숙선의 모습을 보았는데, 막 50대에 들어선 안 명창이 일흔을 훌쩍 넘긴 노대가 정광수 명창에게 소리를 배우는 장면은 아직도 내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수궁가' 예능 보유자 정광수 명창은 소리 경력은 물론 판소리 사설에 대한 이론이 해박한 것으로 유명했다. 소리에 관한 이론이 정연했고, 이면의 표현에 엄격했다. 우아한 발림도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학원 벽에는 큼지막한 서예 작품 한 점이 걸려 있었다. "욕심을 털어버리고 예술에만 정진하라." 정광수 명창이 지어 걸어놓은 한시였다.

정광수제 '수궁가'의 본바탕은 유성준제다. 동편제를 고집한 유성준 명창에게서 1920년부터 '수궁가'를 배운 이들로는 김연수·임방울·정광수 명창 등이 있다. 정광수는 유성준제 '수궁가'를 가장 동편제답게 전승한 명창이다. 한학에 밝고 유식해 기왕의 판소리 사설 가운데 잘못 전승된 것은 고치고, 표현도 격식 있게 다듬었다. '수궁가'는 조선 후기의 정치 현실을 우화적으로 풍자한 작품이다. 힘은 없으나 살아가는 지혜를 갖춘 토끼로 대변되는 민중과,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용왕 및 별주부로 대표되는 지배층 사이의 갈등이 우의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 통쾌한 정치 풍자가 일품이어서 특히 남성 판소리 애호가들에게 인기였다.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정광수제'에서 안 명창은 세 명의 제자 이선희·남상일·서정민과 함께 한 바탕을 완성한다. 먼저 안 명창이 수궁가의 '초압'부터 선의도사가 용왕의 병을 진단하는 '약성가'까지 부른다. '약성가'는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수궁가'의 매력을 오롯이 담고 있는 노래다. 소리꾼 이선희가 수궁의 '어전회의' 대목을 중심으로 소리를 이어가는데, '토끼화상'과 별주부가 맞이하는 육지 세상의 경이로움을 그려내는 노래, '고고천변' 대목을 집중해 들어보자. 남상일은 육지 짐승들이 벌이는 '상좌다툼' 대목부터 별주부가 겁 많은 토끼를 업고 수궁으로 떠나는 장면까지 노래한다. '녹수청산'과 별주부가 토끼의 신세를 직설하는 장면은 그의 기량을 확인할 좋은 대목이다. 서정민은 '범피중류'부터 '토끼가 수궁을 탈출하는' 대목까지 부른다. '좌우나졸'과 '토끼 배 가르려는 장면'이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안숙선 명창이 이어받아 정광수제 '수궁가'를 완결한다. 토끼는 수궁을 탈출해 육지로 살아 돌아오지만, 육지 세상에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덫에 걸린 토끼는 초동들의 손아귀를 재치로 벗어나나, 까불다가 다시 독수리를 만나 죽을 지경을 맞는다. 토끼에게 닥친 위기와 극복의 과정을 재담과 소리에 담아서 흥미롭게 이어가는 후일담 대목은 '수궁가'를 듣는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다.

북 반주는 김청만·조용수·조용복 명고수 세 분이 맡는다. 김청만 명고는 소리북의 예능 보유자로서, 소리꾼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화려한 기교가 특히 주목되는 분이다. 조용수 명고는 국립창극단에서, 조용복 명고는 국립국악원에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약하고 있다. 안 명창은 지난 2006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2월 말, 완창판소리를 진행해왔는데, 이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애초에 12월 31일 밤 9시에 시작해 공연을 마치면 새해가 되는 제야판소리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한 해를 보내는 송년판소리로 자리 잡았다. 완창판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으로 한 해를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다.

글 **유영대** 고려대학교 교수.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지냈으며, 현재 무형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안숙선의 수궁가-정광수제'

날짜 2019년 12월 28일
장소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 **3분 관현악**

낯설어도 새롭게

평균 나이 33세의 젊은 작곡가 10명이
5분 내의 국악 관현악곡을 만드는 도전을 마쳤다.
쉽지 않은 것을 쉽게 전하려는 노력.
'3분 관현악'이 눈에 띄는 실험이었음은 분명하다.

2019년 10월 24~25일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설렜다. 공연 시작 전부터. 그리고 약간의 걱정도 앞섰다. '웬만한 가요나 팝송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이에 도대체 어떤 관현악을 얼마나 담아내겠다는 것인가.'

이 공연의 취지에 따르면 각각의 곡은 대체로 악동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4분 50초)보다도 짧아야 한다. 앤 마리의 '2002'(3분 7초) 정도면 무난히 합격인 셈이다.

지난 7월, 젊은 국악 작곡가 10인은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 별난 작곡 의뢰를 받았다. 국악 관현악곡이되 3분 내외의 짧은 길이로 어떤 경우에도 곡 길이가 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주제는 자유. 상상의 한계는 없되 시간적 한계는 칼 같은 이 상황에 평균연령 33세의 젊은 작곡가들도 처음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파격 실험, '3분 관현악'은 이렇게 작곡가에게도, 연주자에게도, 관객에게도 첫인상부터 느낌표보다 물음표로 다가왔다.

'3분 관현악'이란 실험이 남긴 것

10월 24일 저녁, 달오름극장에는 공연 전부터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3분 관현악'이란 강렬한 제목에 일단 사로잡힌 관객에게서 기대와 설



렘이 교차하는 표정을 읽었다.

첫 곡이자 서곡은 '조율'(작곡 최덕렬). 뒤에 이어질 '어느 예술가의 초상' '어느 예술가들의 순환' 모음곡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서사의 산뜻한 출발로 손색없었다.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처럼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한 악곡은 여유로운 해금 솔로를 거쳐 역동적 볼레로풍의 리듬까지 대담하게 나아갔다. 짝수 박(6박)에서 홀수 박(5박)으로 이행하며 마치 뒤에 이어질 곡의 극적 묘사에 복선이 돼 주는 듯했다.

1부의 중심이 된 4개의 협주곡은 목구멍을 넘어가는 도톰한 캡슐처럼 고막으로 쳐들어왔다. 총 10분여의 짧은 길이 안에 세 젊은 작곡가의 역량과 모험심을 압축해 담아낸 것이다.

'어느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대제 아래 1악장 생황 협주곡 '신기루와 폐허', 2악장 거문고 협주곡 '그 안의 불꽃'(작곡 김현섭·협연 오경자), 3악장 해금 협주곡 '끝없이 하늘 끝으로'(작곡 김영상·협연 변아영)가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약속한 시간의 한계가 버거워 보이기도 했다. 할 이야기가 많았다. 젊은 음악가가 국악에 대해 느낀 환상, 국악계에서 실제로 부딪친 환멸, 자아 안에서 일어난 고뇌와 열정, 극복과 승화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기에 시간은 길지 않았다. 협연자 교체와 박수 시간도 필요해 서사의 호흡이 끊긴 점은 아쉬웠다.

1부의 대단원은 '어느 예술가들의 순환'이라는 대제로 생황·거문고·해금의 3중 협주곡 '정화'가 장식했다. 세 명의 작곡가가 함께 만든 협업 방식부터 신선했다. 관현악·타악·협주 부분을 제각각 만들어 합쳐 완성한 것. 여러 악기와 아이디어가 충돌하는 흥미로운 작업인 만큼 짧은 러닝타임이 아쉽기도 했다.

1부는 사실상 서곡과 4악장으로 이어지는 20분여의 긴 곡처럼 짜여 있었다. '3분 관현악'이라는 상징적 형식에 맞춰 잘려 있었지만 시리즈 형식임을 감안하면 심리적 호흡이 길어 관객이 다소 지루해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젊은 작곡가들의 거두절미, 단도직입의 미학과 거침없고 과감한 협주 악기, 악기군의 활용이 공연 이후 벌어질 여러 가지 화학작용과 새로운 창작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인터미션 때 관객 반응은 양가적이었다. 먼저 다가온 것은 설렘이 친숙함으로 변한 안도감 같은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국악이란, 관현악이란, 국악 관현악이란 쉽지 않다'는 체념 비슷한 것 역시 느껴졌다. '3분'이란 제목이 주는 인상이 강력한 홍보 포인트이자 선입견도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부의 출발은 3악장 구조의 '목멱산'(작곡 장석진)이 수놓았다. 정주와 트라이앵글, 바라를 차례로 활용하며 운해雲海의 잔물결처럼 리듬을 생성했으며, 태평소·대금·박·편경 등 관악기와 타악기를 폭넓게 활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2악장 '산에 오르다'에서 서정적이고 느린 템포로 영화음악의 느낌을 풍기더니 3악장 '목멱산'은 거칠게 질주했다. 잘게 자른 리듬 위로 새타령의 선율 일부를 반복 구절로 잘라 활용해 친숙함과 긴박감을 섞어냈다. 태평소의 음색을 색소폰처럼 활용하며 일견 독일 음반사 ECM 레코드풍의 재즈를 연상케 한 점이 이채로웠다.

'3분 관현악'이란 타이틀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2부





의 후반부터였다. 모음곡이 아닌, 짧은 단일 곡들이 각자 개성을 발하면서 폭발하고 명멸하며 사라졌기 때문이다. 포문을 연 '윤슬'(작곡 최지운)은 제목처럼 다양한 악기군을 폭넓게 사용해 너울거리는 듯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끌어냈다.

이날 공연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곡은 '판타스마Fantasma'(작곡 양승환)였다. 가야금·글로켄슈필·비브라폰의 몽환적인 분산화음을 바탕으로 제목에 걸맞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셰에라자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이국적인 곡이면서도 음색·선율·구성 등 다방면에서 대중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만한 악곡이었다.

'백일몽'(작곡 정수연)의 이어진 배치는 강한 이국적 인상의 '판타스마Fantasma'를 국악적 정서와 이어주는 가교 구실을 하도록 한 묘수였다. 서구 리듬과 우리 장단을 절묘하게 교차해냈다.

이어진 '마지막 3분, 무당의 춤'(작곡 이고운)은 '판타스마Fantasma'와 함께 이날 저녁 매우 강렬한 잔상을 남긴 곡이다. 무당의 광기 어린 몸짓을 벽력같은 도입부부터 강렬하게 묘사했다. 타악기군이 활개 치며 무당의 기개를 마치 영화 속 '조커'처럼 거친 필체로 그려갔다. 중반부 아쟁을 필두로 한 불길한 음계의 색까지, 규모와 스펙트럼에서 할리우드 영화 사운드트랙을 연상시켰다. 후반부의 짧은 장구 솔로와 수미쌍관식의 피날레까지 거친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마지막 곡인 '취(吹)하고 타(打)하다'(작곡 김창환)는 그 유장미를 통해 마치 앙코르처럼 기능하며 공연 전체에 포진한 다채로운 분위기와 스펙트럼을 넉넉하게 품어냈다. 초반부에 가야금과 아쟁이 주도한 느린 태동과 같은 리듬은 시나브로 점차 취타로 발전하더니 끝내 후반부, 선봉에 선 꽹과리의 신명 나는 흥으로 승화해 대단원을 장식했다.

결과적으로 짧은 곡들의 대결과도 같은 2부 후반부는 전체적인 악곡 배치와 흐름에서 자연스러웠다.

'3분 관현악'은 실험이었다. 실험은 늘 미완이다. 오히려 예술적 실험의 의미는 완성태가 아닌 것에 상당 부분 도사린다. 실험과 파격은 늘 인간의 예술에서 시대를 바꾸고 나눠왔다.

'3분 관현악'은 끝난 뒤에도 느낌표보다 더 큰 물음표를 남겼다. 수십 명이 긴 호흡으로 연주하는 국악 관현악에서 3분이란 시간은 얼마나 짧으며 긴 시간인가. 국악 관현악의 주제는 얼마나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인가. 기획의 변처럼 흥·한·어우러짐 같은 추상적 주제를 넘어 명료한 캐릭터와 세부 주제를 그려내는 데 '3분 관현악'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3분 관현악'은 '30분 관현악'을 위한 맛보기에 그칠 것인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형태로서 발전해나갈 것인가.

박수는 끝났고 예술가들의 생은 계속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도 이어질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안전한 시스템 안에서 때로 진리는 관념이란 구획 안에 갇히기 쉽다. '3분 관현악'은 거대한 느낌표를 향한 짧은 물음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했다. 내년에도 '3분 관현악'이 이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해본다.

글 **임희운**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매주 라디오에 출연해 랩을, 격주로 포니정홀에서 임희윤의 '팝학다식'을 강의하고 있다.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특별 대담

공연예술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

2009년 12월 23일. 국내 최초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인 공연예술박물관이 설립됐다.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연예술박물관은 10년 동안 수장고 기능을 넘어 전시로 지금의 관람객과 생생하게 소통하며, 교육으로 미래의 공연예술 전문인을 발굴하고, 지나간 예술로 앞으로의 예술을 빚어내는 가교 구실을 해왔다. 최석영 공연예술박물관 관장을 비롯해 연구용역 책임자로 참여하며 공연예술박물관의 건립부터 지켜봐온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11년 '새로운 공간, 무대를 찾아서', 2019년 '무대 위 새로운 공간의 창조, 무대디자인'展 등에 참여한 박동우 홍익대학교 교수가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의 탄생

성기숙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개관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건립 전 연구용역 책임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에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공연예술박물관 개관은 공연예술계의 숙원이었기에 모두가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당시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의 의지가 강했기에 탄생이 가능했다고 봐요.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화 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연예술박물관은 한국 공연 문화의 보고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석영 공연예술은 일회성·현장성이라는 특성상 자료가 유실되기 쉬운데요. 공연예술자료의 유실을 막고 수집·전시·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박물관 설립에 대한 공연예술계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2009년 12월 23일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개관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공연예술박물관은 의미 깊은 장소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후세대를 양성한 국악사양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1955년에 종로구 운니동에서 개소한 국악사양성소가 1967년 이곳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전했습니다. 그 건물이 2001년 별오름극장으로 재탄생했으며 2008년부터 건물 내부를 새롭게 단장해 이듬해 공연예술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후 공연예술박물관은 공연예술사 자료 정리와 아카이빙을 비롯해 보존과 자료열람 및 복사 등 서비스에 주력했습니다. 체험 위주의 기획전시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박물관 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공연예술의 후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했고요. 유사 기관과의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동안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로 있다가 법인으로 독립한 국립극단·국립합창단·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에서 생산·소장하는 자료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사 기관인 국립국악원·국립무형유산원·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과 디지털화한 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K-판이라는 공용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관장님께서 공연예술박물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그간의 활동을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공간의 역사성'을 언급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국립국악고등학교 전신인 국악사양성소는 무형문화재 제1세대가 배출된 곳이자 전통 공연예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유서 깊은 공간이지요. 이곳이 소실되지 않고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거듭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공간이 품고 있는 예사롭지 않은 '역사성'도 기억할 점이라고 봐요.

사실 공연예술은 장르의 특성상 공연을 하고 나면 대본·의상·무대 제작물은 남아 있지만 작품 자체는 증발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박동우 교수님은 공연예술계 무대미술 분야 거장이신데요. 현장 전문가는 공연예술박물관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동우 그 나라의 공연예술 수준과 공연예술박물관의 가치는 결국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수십 년 사이 우리나라 공연예술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예술박물관의 입지 조건·적은 인력·넉넉지 않은 예산 등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보고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발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 네트워크의 필요성

성기숙 공연예술박물관의 1차 목적은 국립극장 전속단체의 활동과 그 흔적을 수집·정리하고 보존하는 작업이 최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국립극장 내 국립무용단·국립창극단·국립국악관현악단과의 유기적 네크워크가 중요하다고 봐요. 단체별 공연 전공 전문 학예연구사가 박물관 인력으로 반드시 배치돼야 합니다. 창작 단계부터 전문 학예연구사를 매칭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도록 해야 해요. 후속 작업인 자료 축적에 이르기까지 작품을 제작하는 연속선상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최석영 공감합니다. 향후 지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면 박물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기숙 우리나라도 문화 강국이라 할 만큼 여러모로 발전했고, 국제 교류도 10년 전에 비해 활발해진 편이에요. 일본 도쿄의 와세다 대학교에는 1928년 쓰보우치 쇼요의 고희를 맞아 개관한 연극 전문 박물관이 있어요. 세계 최고·최대의 아시아연극 전문 박물관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자료의 희소가치도 높고, 16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포천 극장을 모델로 한 고풍스러운 외관의 건물 자체도 랜드마크로 불리지요. 와세다 연극박물관은 전문 연구 인력이 매우 풍부한 편입니다. 연극을 전공한 한국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종종 연구원을 지내기도 해요.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객원 연구원 신분으로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경우를 봤어요. 국립극장은 한국 공연예술의 메카이자 정신적 본산이에요. 그렇다면 국립극장 내 공연예술박물관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공연예술박물관 등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갖는 등 외연 확장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공연예술박물관 등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갖는 등 외연 확장 작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성기숙

"국제박물관협의회 내 십마스 가입과 국제 활동으로 세계 동향을 엿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석영



최석영 네,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 교류 또한 외연 확장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이라든지 스웨덴·오스트리아 등의 역사 깊은 공연예술박물관·자료관과의 국제 교류는 검토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시야를 넓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내 십마스SIBMAS 가입과 국제 활동으로 세계 동향을 엿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함께 우리 공연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공동 기획전시와 자료 조사, 연구 등의 교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박동우 관장님께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박물관의 전시 자체가 교육이고, 그 대상은 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시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바로 당면 과제입니다. 국립극장은 산중에 지어져 있고, 정문에서 5~10분쯤 걸어야 공연예술박물관에 도착합니다. 마음을 먹어야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대중과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가대극원은 입구에서 극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 밑의 통로 양쪽에 전시장이 있고, 항상 공연예술 관련 전시를 하고 있죠. 관객은 공연을 보러 왔다가 자연스레 전시를 접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중인 해오름극장은 워낙 크게 지어진 극장이니, 유휴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해오름극장의 1·2·3층 로비를 활용해 전시하면 어떨까요. 2007년까지 런던 코벤트 가든에는 '영국 연극 박물관'이 있었어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관광 중심지 코벤트 가든에 위치한 이 박물관에는 관광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언제든 들어가 볼 수 있었죠. 공연예술박물관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시청 근처 배재학당에서 진행하는데요,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성기숙 박 교수님 말씀처럼 남산 중턱에 위치한 공연예술박물관은 접근성 면에서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또 극장과 박물관도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고요. 그런데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극장 로비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국립극장을 찾는 관람객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운영시간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개 공연은 평일 저녁에 열리잖아요. 공연예술박물관을 공연 직전까지 오픈하는 것은 어떨지요?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공연예술박물관이 남산 중턱에 있다는 점은 대중 접근성 면에서 한계인 것은 분명해요. 대신 자연친화적이고 주변 경관이 멋지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닐까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게티 센터는 산 정상에 있어 트램을 타고 올라가야 해요.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꼭 방문하는 문화 단지로 자리매김했어요. 건물 자체도 명품이지만, 박물관을 채우는 소장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요. 공연예술박물관도 전속단체에서 생산하는 공연 자료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서 희소성 높은 컬렉션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연 자료의 발굴과 수집·전시와 보존·연구와 교육 등이 공연예술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아닌가 해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박제화된 화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술가에게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기억의 저장고로서 정신적 토양이 돼주는 것이죠. 예컨대 1930년대 후반 신무용가 조택원 선생이 파리에 머물 때, 거의 매일 박물관에 갔다고 해요. 박물관에 드나들면서 역사·문화적 소양을 쌓고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술회한 기록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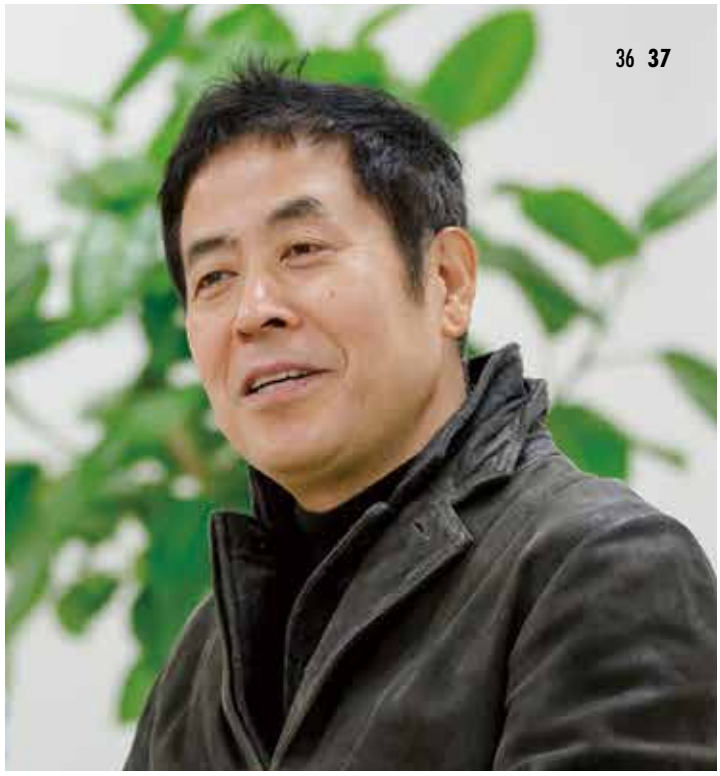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

박동우 맞습니다. 또한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들어서 보여줘야죠. 일례로 과거 전통 예술 공연이 어땠는지 좀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불과 200~300년 전 조선 시대에 궁중연희가 있었고, 그전에 고려 시대 팔관회가 있었죠. 신라 시대에도 음악에 많은 관심을 뒀어요. 과거를 쭉 짚어가며, 역사적으로 이 나라의 공연예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관람객이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역사가 깊구나, 자부심을 가질 만하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 모형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중국 국가대극원에서는 대극원이 제작한 공연 무대를 10분의 1 크기로 만들어서, 관람객이 그 사이로 걸어 다니며 관람하도록 구성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우리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전시물을 제작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볼거리가 되겠죠. 오늘날에는 무엇이든 스마트폰 화면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익숙한데요. 박물관에 와서 실제 입체물을 보는 것은 2D 화면으로 볼 때와는 감동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자료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해요. 오늘날 대중은 미술관·박물관에 가서 볼거리와 함께 셀카를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홍보하죠. 가고 싶은 장소가 되도록, 대중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최석영 지금 굉장히 귀중하고,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으로서 조직 변화와 상설전시 공간의 확대와, 자료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수장고가 필수인데 당장 수장고 증축이라는 현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시와 박물관 교육을 위한 공연예술자료에 대한 연구의 지평도 크게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우 저는 '극장전'이란 기획 전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인된 기록상 1902년에 개관한 협률사가 국내 최초의 극장 건축물인데요. 협률사와 광무대·연흥사·단성사·조선극장·동양극장·원각사 등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기록 사진을 쭉 전시하면 어떨까요. 또한 현대의 주요 극장은 다들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대여해서 함께 전시한다면 우리나라 극장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차원에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들어서 보여줘야죠."
박동우

성기숙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크게 상설전시관·기획전시관 두 방향으로 운영되는데요. 공연예술박물관도 마찬가지죠.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대부터 고려·조선·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공연예술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은 상설전시관에 담아내고, '극장전'처럼 특별전시는 기획전시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매해 산술적 의미를 갖는 역사성에 포커스를 둬서 기획전시를 설계하면 어떨까요? 마침 내년은 6.25전쟁 70주년이에요. 국립극장은 6.25전쟁 때 대구로 피란해 명맥을 유지했고, 명동 시공관을 거쳐 남산 시대를 맞이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향후 10년은 전통과 현대를 가교한 근대 신연극과 신무용을 기념하는 산술적인 해가 줄을 이을 거예요. 관련 전시·학술·공연 등 입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예술박물관은 10년간 한국의 공연예술 전문박물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공연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기록 문화의 결핍을 채워줬어요. 무엇보다 공연예술의 정신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10년간 초석을 쌓았다면, 이제는 한 단계 발전해 세계 속 공연예술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이 한국 공연예술의 정신적 본산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좌담을 마칠까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 **이정연·차경주** 국립극장 홍보팀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무대디자인'展

무대 예술가의 무한한 상상

극장에 들어선 순간, 관객은 외부와 단절된 채
무대 디자이너와 연출가·배우가 창조한 세계를 마주한다.
그 세계의 바탕을 만들고, 환상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무대 디자인이다.

영국의 거장 연출가 피터 브룩은 무대 디자이너의 스케치를 명징하지만 고정되지 않은, '열린' 디자인으로 봤고, 무대 디자인은 배우의 연기와 함께 움직이며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 화가가 2차원적으로, 조각가가 3차원적으로 사고한다면, 연극 디자이너는 4차원, 즉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사고한다."

공연예술의 이면을 살펴본 전시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 '무대 위 새로운 공간의 창조, 무대디자인'(이하 '무대디자인'展)에서는 공연 무대가 단순히 배경에 그려진 그림 이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대 디자인은 무대미술의 한 요소다. 공연의 시각 정보와 이미지를 표현해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자, 무대 위의 모든 환경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무대미술은 넓은 의미로 무대 위에 보이는 장치·의상·조명 등의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다. 무대장치가 일반적인 의미로 무대 디자인에 해당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무대의상 스케치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무대디자인'展은 국립극장 개관 후 69년 역사를 만들어온 무대 디자인 자료를 기반으로 공연 이면에 존재하는 작업 과정과 이를 위한 무대 기술의 변천을 다룬다. 한국 공연예술의 무대 디자인 전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과 공동 주최로 서울 근대문화 1번지 정동에 위치한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연다.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된다.

한눈에 살펴보는 국립극장 공연예술의 흐름

1부에서는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국립무용단과 이관단체인 국립극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을 기준으로 섹션을 나누어 진행한다. 각 섹션 안에서 연대순으로 전시됐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50년 국립극장의 탄생과 함께 창단된 국립극단은 한국 현대 연극사의 맥을 이어온 데다, 다른 극단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큰 무대를 많이 선보여와서 가장 관심이 갔다. 1959년 서울신문 현상공모 당선작인 '젊은 세대의 백서'를 시작으로 1970년대 이전까지 김정환과 디자이너 장종선의 무대가 주를 이루었다. 작은 소품이나 장식의 문양과 색깔까지 지정하는 세심한 디자인에 놀랄 때쯤, 1973년 막을 올린 '성웅 이순신'의 무대가 나왔다. 전시를 보기 전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다. 만약 이 작품이 없었다면 섭섭했을 것이다. 이 무대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우선 국립극장이 명동 시대를 마감하고 1973년 남산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후 열린 첫 공연이라는 데 있다. '성웅 이순신'은 준공 기념 공연으로 큰 기대를 받았다. 국립극단원뿐만 아니라, 당시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합창단·국립가무단·국립발레단





등 총 240여 명이 협연했으며, 당시 국내 연극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극장과 무대였다. 명동 시절 시공관보다 28배나 큰 무대는 자동 회전과 수평이동·입체 승강이 가능했고, 무대장치와 배경, 의상 등도 이에 걸맞게 상당했다. 하지만 공연을 마치기 5분 전, 기계장치가 말썽을 일으켰다. 이순신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 무대가 돌며 배우들이 합창하며 막을 내리는 장엄한 장면인데, 이순신 혼자 무대에 덜렁 남게 됐다. 지금은 웃으면서 듣는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땀을 뺐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다. 전시에 나온 웅장한 무대 스케치를 보면서, 현장의 예술이라는 공연에서 무대가 가진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국립극단의 '바리더기'(1983)와 국립발레단의 '바리'(1998)를 보면 장르 간 무대의 차이도 볼 수 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바리'의 무대는 연기로 서사를 풀어내는 '바리더기'의 무대보다 훨씬 간결하다. 시대차를 느끼기엔 40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무대에 오른 국립국극단의 '춘향전'(1962)과 국립창극단의 '성춘향'(2001)을 나란히 두고 보는 게 제격이다. '춘향전'이 수묵화로 그려낸 듯한 무대를 선보인 데 반해, '성춘향'은 막이 바뀔 때마다 병풍을 바꿔서 무대를 표현했다. 좀 더 정제되고 현대적으로 진화한 셈이다.

무대 위 세상을 표현하는 재료, 의상

다시 한번 피터 브룩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잘못된 의상으로 배우의 연기를 망치자고 들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으며 실제로도 꽤나 자주 있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의상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완성도 높은 의상은 무대 위 세상을 표현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다. 이번 전시 작품을 비교해 볼 때도, 의상이 가장 눈에 띈다. 일단 국립오페라단 '오텔로'(1998)의 경우, 무대보다 화려한 의상에 마음이 빼앗겨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게 된다. 의상 스케치를 한 종이에 실제로 쓰일 원단 천조각을 붙여 완성된 의상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강렬한 원색을 많이 사용한 데다가 금사가 들어간 벨벳 등 소재도 다양하다. 국립오페라단의 전시를 지나 국립무용단에 이르면 또다시 의상이 눈길을 끄는 전시가 있는데, 이 역시 '오셀로'(1997)다. 이것은 한국적 춤사위의 춤극이기 때문에 전통의상이라는 것만 다를 뿐, 화려한 색과 다양한 소재, 그리고 스케치 옆에 원단을 붙여놓은 것까지 똑같다. 두 무대의상을 찬찬히 뜯어보면, 과연 관객들이 의상 디자이너의 세세한 정성을 다 알아챌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공연의 완성도는 이렇게 작은 곳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무대 디자이너의 방'에서는 무대 제작 과정 영상과 함께 국립극장 무대에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 무대미술가 이태섭과 박동우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다. 전시를 보고 난 뒤에 이 앞에 한참 동안 서 있는 관객들이 있을 정도로 전시와 매끄럽게 연결된다.

관객들의 상상이 시작되다

1부 전시실이 스케치와 평면도 위주였다면, 아래층에 마련된 2부 전시실은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 전시실 3면이 다 화면으로 이뤄졌고, 관람객이 공연 무대를 직접 시각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관람객이 전시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 무대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며 변하도록 연출된 체험 겸 감상 공간이다.

유럽 근대어에 있는 '극장'의 어원 '테아트론theatron'의 뜻은 '본다', 즉 '사물이 보이고 행하는 장소'다. 배우들의 연기나 춤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캄캄한 극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관객은 외부와 단절된 채 무대 디자이너와 연출가, 배우들이 창조한 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그 세계의 바탕을 만들고, 환상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로 무대디자인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 공연 역사를 색다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연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배가해준다. 미술 작품 못지않은 무대 디자인과 의상 디자인의 스케치를 보면서 관객들이 당시의 공연 무대를 저절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전시는 제 역할을 다했다. 무대 디자인이 또 다른 시각 예술이 될 가능성도 열어줬다는 것은 덤으로 얻은 성과다.

글 **변희원** 조선일보 기자



공연예술박물관 '무대 위 새로운 공간의 창조, 무대디자인'展

날짜 ~2020년 2월 29일
장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02-2280-5804

국립극장 | 국립무용단

국립무용단 명절기획시리즈

설·바람



2020
1.24
|
1.26

국립극장 | 하늘
오후 3시

예술감독
손인영
연출
김명곤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인터파크
1544-1556
티켓링크
1588-7890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국립극장 12월 공연

해오름극장(리뉴얼 중) 달오름극장 별오름극장 하늘극장 기타(외부공연장 기획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13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14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15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16	17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18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19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0:00	20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0:00	2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22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23	24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25 성탄절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26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27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00	28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국립극장 '송년판소리' 15:00
29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30	31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15:00				

예매 및 문의 02-2280-4114 I www.ntok.go.kr

※공연 일시가 변동되거나 공연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헨젤과 그레텔

독일 작곡가 훔퍼딩크는 그림형제 수록 동화를 바탕으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만들었다. 독일 민요가 연상되는 신비로운 멜로디와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이 특징인 이 오페라는 1893년 12월 23일 독일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초연했다. 이후 오늘날까지 크리스마스 전후에 공연되고 있다. 2018년 첫선을 보인 국립오페라단 '헨젤과 그레텔' 프로덕션에는 독일 레퍼토리에 정통한 연출가 크리스티안 파데가 참여했다. 연출가는 지난 20년간 함께 작업한 무대·의상 디자이너 알렉산더 린틀과 화려한 미장센의 오페라를 선보였고 작품 이면에는 현대인의 과도한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을 담았다. 이번 공연에는 지휘자 성시연이 함께한다. 성시연은 2018년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 지휘를 맡으며 오페라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헨젤 역은 메조소프라노 유스티나 그린기테와 양계화, 그레텔 역은 소프라노 캐슬린 김과 한은혜가 맡는다.

날짜·장소 12월 5~8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국립오페라단 1588-2514



발레리 게르기예프 &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사이에는 오랫동안 회자되는 일화가 있다. 2005년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역이 연주 당일 무대에 서지 못한다고 통보하자 게르기예프는 '나비 부인'에서 '투란도트 콘서트 오페라'로 변경하고,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을 소집했다. 다섯 시간 뒤 무대 위에서 '투란도트' 콘서트가 펼쳐졌다. 급조된 연주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무대였다. 이 일화는 게르기예프와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호흡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겨울과 잘 어울리는 작품들을 선사한다. 마린스키만의 광대한 사운드로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들려주고,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과 함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다. 후반부에는 깊은 겨울의 정취가 묻어나는 러시아 작곡가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라벨 관현악 편곡 버전으로 연주한다.

날짜·장소 12월 10일 | 롯데콘서트홀
문의 롯데콘서트홀 1544-7744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2019년 12월 전국 리사이틀 투어를 펼친다. 사라 장의 독주회는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그는 1990년, 만 여덟 살의 나이에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하면서 세계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듬해에는 EMI 레이블과 계약했고, 1994년 13세의 나이로 베를린 필하모닉 데뷔 무대에 섰다. 지휘자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네빌 매리너는 사라 장을 두고 "그녀는 내가 150년간 공부해야 할 분량을 하고 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재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동으로 극찬받던 사라 장은 어느덧 세계 무대 데뷔 30주년을 앞두고 있다. 주로 협연 공연을 해온 사라 장의 이번 리사이틀은 관객에게 반가운 소식이리라. 프로그램 1부는 버르토크 루마니아 민속 무곡과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보인다. 2부에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바치니 '고블린의 춤', 드보르자크 '로망스', 라벨 '치간느' 등으로 정교한 테크닉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날짜·장소 12월 17~29일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외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보디가드

뮤지컬 '보디가드'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보디가드'는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 1992년 개봉한 영화는 스토커의 위협을 받는 팝스타와 보디가드의 애틋한 러브스토리로 인기를 얻었다. 영화음악은 당대 빌보드차트 상위권을 휩쓸기도 했다. 뮤지컬 '보디가드'는 휘트니 휴스턴의 명곡을 녹여낸 주크박스 뮤지컬로 주목받았다. 원작 각본가 로렌스 캐스단이 어드바이저로 참여해 6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2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초연했다. 2016년 국내 초연에는 주옥같은 명곡들을 듣길 원하는 관객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퍼포먼스가 더해져 다양한 즐거움을 쏟아낸다. 주인공 레이첼 마론 역은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네 명의 여배우 김선영·박기영·손승연·해나가 함께한다. 배우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각자 달라서 4인 4색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보디가드 프랭크 파머 역에는 이동건·강경준이 합류한다.

날짜·장소 ~2020년 2월 23일 | LG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빅 피쉬

대중에게 친숙한 '빅 피쉬'가 이번 연말, 뮤지컬로 관객을 찾는다. '빅 피쉬'는 1998년 발표된 대니얼 월리스의 원작 소설과 2003년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로 잘 알려진 작품이다. 뮤지컬 제작사 CJ ENM은 한국 정서에 맞춘 새로운 스타일의 '빅 피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 작품은 뮤지컬 '킹키부츠'와 '보디가드'에 이어 선보이는 글로벌 공동 프로듀싱 작품으로 주목을 모은다. 2013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선보인 후 6년 만에 한국 버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해외에서 주목받는 유망 연출가 스콧 슈워츠의 첫 한국 진출작이어서 더욱 이목을 끈다. 낭만적인 허풍쟁이 에드워드 역에는 남경주·박호산·손준호가 오르고, 그의 아내 산드라 역에는 구원영·김지우가 함께한다. 아버지 에드워드의 삶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아들 윌 역에는 이창용·김성철이 더블 캐스팅됐고, 윌의 약혼자 조세핀 역에 신인 배우 김환희가 합류한다.

날짜·장소 12월 4일~2020년 2월 9일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자전거도둑헬멧을쓴소년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선보이는 2019년 마지막 청소년극. 소설가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을 원작으로 한다. 소설은 1970년대 빠른 속도로 근대화된 우리 사회에서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작의 70년대 배경을 현재로 각색하고, 주인공 수남을 우리 사회 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소년으로 치환했다. 그간 청소년극이 주로 학교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사회를 전면으로 마주한 10대 인물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그려낸다. 극단 그린피그의 상임연출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인 윤한솔이 연출을 맡았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윤한솔 연출의 첫 청소년극 도전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윤한솔은 학생들과 희곡을 함께 읽는 워크숍을 열었고, 참여 배우들은 직접 길거리에 나가 청소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 10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날짜·장소 ~12월 15일 | 국립극단 소극장 판
문의 국립극단 1644-2003

무용·국악



루돌프

국립현대무용단이 어린이를 위한 현대무용 작품 '루돌프'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미래 세대가 현대무용을 즐길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무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 5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아이들이 현대무용을 부담 없이 감상하도록 해 훗날 관객으로 이끌고자 하는 염원에서다. '루돌프'는 '어린이·청소년 무용 레퍼토리 개발 프로젝트'의 첫 작품이다. '루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원숭이의 첫 모험담이 현대무용으로 펼쳐진다. 안무를 맡은 이경구는 재치 있는 움직임은 물론 대사나 표정, 이야기까지 세세히 고안했다. 이번 초연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이탈리아 인터랙티브 시어터 TPO가 함께 하는 데 있다. TPO는 무대에 영상 연출을 더하는 디자인 그룹으로, 다채로운 시각 자극을 선사하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루돌프' 공연 중 다양한 관객 참여 활동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무용수들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도록 했다.

날짜·장소 12월 7~17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문의 국립현대무용단 02-3472-1420



호두까기인형

올겨울도 어김없이 여러 무용단에서 '호두까기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그중 발레 애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러시아 볼쇼이 발레에서 초연한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 버전을 선보인다. 주인공 마리가 크리스마스 날 꿈속에서 왕자를 만나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그리고로비치는 작품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마리의 대부 드로셀마이어를 극을 이끌어가는 화자로 설정했다. 드로셀마이어는 마법을 부리며 극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작품에서는 무용수를 무대장치의 일부로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24명의 발레리나가 출연하는 눈송이 왈츠는 그리고로비치만의 예술성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균형감과 대조미를 뽐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마리 역에는 박슬기·박예은·김리회·정은영·조연재·김희선·심현희·신승원이 서고, 왕자 역에는 이재우·허서명·박종석·김기완·하지석·김태석이 오를 예정이다.

날짜·장소 12월 14~25일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국립발레단 02-587-6181



적로

음악극 '적로'는 2016년 개관한 서울돈화문국악당의 첫 번째 제작공연이다. 2017년 초연 때 호평을 받고 이듬해 일본과 한국에서 재공연을 했다.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이번 공연은 '적로'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금 명인 박종기(1879~1941)와 김계선(1891~1943) 두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다. 환갑을 넘긴 박종기의 경성살이 마지막 밤, 우연히 마주친 김계선과 그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지난날을 회고한다. 극작가 배삼식과 작곡가 최우정, 안무가 정영두 등 화려한 제작진이 오늘날 우리 음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두 음악가의 이야기를 높은 완성도로 선보인다. 소리꾼 안이호와 정윤형, 하윤주 등 초연 배우들이 다시 뭉치고, 이상화와 조정규, 조의선이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또한 박종기 명인의 대를 잇는 그의 고손자 박명규가 직접 대금을 연주한다.

날짜·장소 12월 6~29일 | 서울돈화문국악당
문의 서울돈화문국악당 02-3210-7001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2016년부터 추진한 국립한글박물관의 '한글실험프로젝트'는 한글 디자인의 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해왔다. 제3회 '한글실험프로젝트'는 패션 분야와 협업을 통해 실용 디자인으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전시는 한글 형태를 주제로 펼쳐진다. 한글 창제 원리가 가진 조형적 특성 중 조합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글자와 사물을 연관시켜 한글을 유희 대상으로 바라본다. 다양한 작가가 참여해 한글 형태에 내재된 질서와 규칙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표현한다. 한글 형태가 가진 상징성을 넘어 상용화의 가능성도 살핀다. 유혜미·박철희 디자이너는 '한글 마루'라는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진행한다. 한글의 모아쓰기 구조를 이용해 레터링을 개발하고 이를 마루에 적용해 실용 디자인 소재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신우 디자이너는 모아쓰기 원리를 이용한 그래픽 패턴 작업을 하고 프래그 스튜디오(을지생산)와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

날짜·장소 ~2020년 2월 2일 |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국립한글박물관 02-2124-6200



©김익현

모던 로즈

남서울미술관 건축물은 대한제국 시기에 세워진 옛 벨기에영사관으로, 건립 이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이 된 이 건축물은 다양한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정지된 과거에 빠져드는 것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전시는 건축물이 매개한 심리적 감성을 들춰 보면서 다층적인 면모를 사유한다. 전시명 '모던 로즈'는 20세기 초 벨기에영사관에 있던 장미에 대한 기사에서 연유했다. 일제강점기에 벨기에영사관이 매각되면서, 서양에서 온 장미는 당시의 조선호텔 로즈가든으로 옮겨져 근대 감성을 향유하는 상징이 됐다. 전시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근현대의 복합적인 시간을 소환한다. 일곱 명의 작가는 새롭게 제작·연출한 작품들로 독립된 개별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미술관이 지나온 겹겹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다락을 처음으로 개방한다.

날짜·장소 ~2020년 3월 1일 |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문의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02-598-6247



알폰스 무하

알폰스 무하는 1860년 체코의 슬라브 모라비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무대미술을 배웠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잡지와 광고 삽화를 그리며 가난한 생활을 유지하다가, 배우 사라 베르나르의 연극 포스터 작업을 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때부터는 보석·카펫·벽지 등을 다채롭게 제작한다. 그의 화풍은 '무하 스타일Le Style Mucha'이라고 불리며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널리 알려진다.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가로 성장하나, 1910년 상업적인 인기를 뒤로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체코의 독립을 염원하는 작품 활동을 했다. 이번 전시는 알폰스 무하의 오리지널 작품 230여 점을 작가의 삶에 따른 작품 변화에 맞춰 총 5부로 구성한다. 체코 출신 테니스 선수인 이반 렌들의 개인 소장품을 주축으로 한 이 컬렉션은 2013년 프라하에서 첫 공개된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을 순회했다. 이번 한국 전시는 마이아트뮤지엄의 개관 특별전으로 열린다.

날짜·장소 ~2020년 3월 1일 | 마이아트뮤지엄
문의 마이아트뮤지엄 02-567-8878

글 **장혜선** 바른 시선으로 무대를 영원히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글을 쓰고 있다.

국립극장 이용 안내

티켓 예매 및 회원가입 안내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ntok.go.kr

예매 수수료 없음, 엔톡NTOK 회원 가입 시 최고 20% 할인율 제공

전화 및 현장 예매

콜센터 02-2280-4114(오전 9~12시, 오후 1~6시 / 연중무휴)

예매처 하늘극장 옆 고객지원센터 방문

할인 안내

종류	할인율		비고
엔톡NTOK 회원	최고 20%	1인 4매	국립극장 홈페이지 회원
문화융성카드		제한 없음	문화융성카드 결제 시
임산부	20%	본인	산모수첩 소지자
다둥이 행복카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문화패스(청소년 등)	30%	본인	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학생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 소지자
경로	50%	본인	65세 이상
문화누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유공자		1인 2매	복지카드 소지자

*공연별 할인율은 주최 단체에 따라 상이하며,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수령 시 증빙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TICKET RESERVATION AND JOIN

INTERNET / MOBILE RESERVATION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ntok.go.kr

No reservation fee, Maximum 20% discount for NTOK members

MOBILE / COUNTER RESERVATION

Service Center 02-2280-4114 (9:00–12:00 a.m., 1:00–6:00 p.m. every day)

Booking Office Visit to the Customer Service Center next to Haneul Theater.

DISCOUNT

Category	Discount Rate		Remarks
NTOK member	Max 20%	4 per person	NTOK website members
Cultural prosperity card		No limit	Purchase with cultural prosperity card
Pregnant woman	20%	Oneself	Who has pregnancy diary
Dadung-i happy card			Who has a Dadung-i happy card
Culture pass (teenager, etc.)	30%	Oneself	8–24 years old, Uni. Student
Art pass			Who has an art pass
Elder	50%	Oneself	65 years old or older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Near poverty			Near poverty
Handicapped veteran		2 per person	Who has a welfare card

*Refer to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website for the detailed discount information of each program.

*Take the certificate to receive the ticket.

NATIONAL THEATER OF KOREA INFORMATION

국립극장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주차 안내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로 국립극장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국립극장 맞은편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

공연 당일 국립극장 내 사전 정산 시 5천 원(공연 시작 전 30분~종료 후 30분)

미정산 시 최초 30분 2천 원 이후 10분당 1천 원(일일 최대 2만 5천 원)

*주차 할인권은 매표소에 당일 공연 티켓을 제시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자유총연맹(J-그랜하우스웨딩홀)이 혼잡해 주차가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 국립극장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국립극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동반 차량 및 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주차는 국립극장 고객지원센터(02-2280-4114)로 사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후 도보·버스 이용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하차 후 버스 이용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하차 후 버스 이용

간선버스 420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남산순환버스 02·03·05 '국립극장' 정류장 하차

무료 셔틀버스

공연 전

타는 곳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남산순환버스 정류장 앞

운행구간 3호선 동대입구역→국립극장

운행시간 공연 1시간 전부터 20분 전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

공연 후

타는 곳 하늘극장 앞

운행구간 국립극장→3호선 동대입구역→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운행시간 공연 종료 직후

DIRECTION

ADDRESS

59, Jangchungdan-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PARKING

As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s under construction the parking lot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is not available. Go to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across the Theater.

PARKING FEE

Pre-purchase of parking discount ticket on the day of performance

5,000 KRW (30 minutes before/after the performance)

Without parking discount ticket 2,000 KRW for less than 30 min.,

1,000 KRW/10 min. after first 30 min. (Max 25,000 KRW a day)

*Present the ticket of the day at the ticket office to purchase the parking discount ticket.
*The parking lot of Korea Freedom Federation (J-Gran House Wedding Hall) will be crowded on the weekend. Public transportation and free shuttle bus could be the easier way to visi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ake an advance inquiry to the Management Facilities Team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regarding the parking of bus, large vehicle, and handicap accessible vehicle. (02-2280-4114)

SUBWAY / BUS

Dongguk Univ. Station (Line. 3) Transfer to the bus or on foot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Transfer to the bus

Hangangjin Station (Line. 6) Transfer to the bus

Bus 420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Namsan Circulation Bus 02/03/05 'National Theater of Korea' stop

SHUTTLE BUS (FREE)

BEFORE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Namsan Circulation Bus stop at Exit 6 of Dongguk Univ. Station (Line. 3)

Route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National Theater of Korea

Operating Time Every 10–15 minutes from 1 hour to 20 minutes before performance

AFTER PERFORMANCE

Boarding In front of Haneul Theater

Route National Theater of Korea → Dongguk Univ. Station (Line. 3) → Dongdaemun History and Culture Park Station (Line. 2/4/5)

Operating Time After the performance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2009년 12월 23일에 개관해 약 22만 점의 귀중한 공연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이 설립된 195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무용·창극·음악·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전시실과 공연예술자료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실

관람 안내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관람료 무료
문의 02-2280-5804, 5806

*박물관 내부 프로그램 진행 시 사전 예약하지 않은 단체(5인 이상)는 전시실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체관람 안내

관람 질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단체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학교 및 기관 관람 인원이 10인 이상~30인 미만일 경우 관람일 일주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합니다.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해설 안내

전문 전시해설사가 상설전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 1인 이상~30인 이하(초등 고학년 이상)

*전시해설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시해설 예약은 단체관람 예약과 별도입니다.

공연예술자료실

자료실 I 공연 영상·음향·사진·대본·프로그램 등
자료실 II 연극·창극·무용·음악 등 도서자료
운영 오전 9시~오후 6시(오후 12~1시 휴실)
위치 공연예술박물관 1층(자료실 I), 지하1층(자료실 II)
휴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문의 02-2280-5834, 4025~6

전시연계프로그램 안내

유치원 단체를 위한 동화 구연, 어린이·가족 대상 주말·방학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공연꾸러미 대여사업 등 다양한 전시연계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SEUM OF PERFORMING ARTS

Opened on December 23, 2009,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of National Theater of Korea has the most precious materials amount to about 220,000. Since its foundation in the 1950s until now, it has collected and stored materials in performing arts of various genres such as play, dance, changgeuk, opera, and pansori in which the materials are being served to the public through its exhibition rooms and Performing Arts Archives.

PERMANENT EXHIBITION

EXHIBITION INFO

Opening Hour 10:00 a.m.–6:00 p.m. Tuesday to Sunday (Last enter 5:30 p.m.)
Close Monday, 1st of January
Admission Free
Info 02-2280-5804, 5806

*Some of Permanent Exhibition could be limited to the groups over 5 without reservation while the internal program is in progress.

GROUP VISIT

Advance reservation for groups to prevent any disorder and accident of the exhibition.

*Reservation is required for all the kindergarten, school, and institution groups of 10 to 30 before a week ago. Contact to the office for the groups over 30.

EXHIBITION COMMENTARY

Professional exhibition commentators conduct the exhibition commentary.

Group Group of 30 or less (from 4th grade of elementary)

*Commentary could be ended by the order of arrival.
*Reservation of the commentary is different from the group tour reservation.
*Special exhibition room has been closed due to the operation until October, 2019.

PERFORMING ARTS ARCHIVES

Archive I Performance video, sound, picture, script, program, etc.
Archive II Play, changgeuk, dance, music (library)
Opening Hour 9:00 a.m.–6:00 p.m. (Closed between 12:00 p.m.–1:00 p.m.)
Location 1st floor of the Museum of Performing Arts (Archive I), B1 (Archive II)
Close Saturday, Sunday, public holiday
Info 02-2280-5834, 4025–6

EXHIBITION-LINKED PROGRAM GUIDE

Various exhibition-related programs such as fairy tales story-telling for kindergarten groups, weekend and vaca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families, you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 performance package rental projects are regularly operated.

* Details can be found on the museum website.

MIX

50
세계무대
뉴욕·아비뇽
공연예술 아카이브

54
전통 예술 기행
헝가리 부쇼야라시

58
삶과 노래 사이
맛있게 까먹는
우리네 겨울 소리

62
예술서적
미우라 가요
'미술관에 간 과학자'

뉴욕·아비뇽 공연예술 아카이브

잠들어 있는 공연예술자료를 깨우는 시도

공연예술과 아카이브, 두 영역은 가깝지만 멀다.
공연예술은 사라진다는 숙명을 지닌 반면,
아카이브는 자료를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 아카이브는 사라지기 마련인
무대 위 순간을 계속 붙잡고자 하는 시도다.



공연예술 기록을 활용한 시각예술

공연예술과 아카이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라지는 것과 보존하는 것. 그 때문에 '공연예술'을 '기록'하는 것은 어렵다. 같은 공연이라도 매번 달라지는 무대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연 현장의 생동감을 사진과 영상 같은 기록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공연의 총체성은 파편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공연 당시의 무대 상황이나 작품의 중요성·미학적 가치는 오직 남아 있는 기록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황과 제작 과정을 면면히 남기는 일은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공연예술계보다 시각예술계에서 먼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검토됐다. 2013년부터 아카이브를 활용하는 전시가 이어졌는데, 종종 공연예술 기록을 사용하는 사례도 전시관에서 목격됐다. 일민미술관의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공동체 아카이브'(2017) 전시는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소리·춤·리듬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사회학자·역사학자·문화인류학자 등이 쌓아온 기록물은 기존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발자취를 보여줬다. 여기에는 '여성국극'을



프랑스 국립도서관 © Vincent Desjardins

조사하고 이를 현대 맥락의 공연으로 재창조한 정은영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전시에서 음악·연극·안무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은 각자의 리듬 속에서 스스로 자료를 재구성하며 감상했다. 아카이브의 틈새를 채워가는 연구자의 노력과 관람자가 공감각적인 방식으로 감상하는 과정 모두가 표현된 것이다.

공연예술계에서 무용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가장 주도적으로 풀어낸 기관은 국립현대무용단일 것이다. 2014년 '역사와 기억'을 주제로 한국무용의 역사를 되짚는 아카이빙 작업을 시도했다.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열린 '결정적 순간들: 공간사랑, 아카이브, 퍼포먼스'(2014)는 소극장 공간사랑의 역사와 그 의의를 반추하는 실제 기록물을 수집·정리하고 공유하는 전시였다. 이 중 '리빙 아카이브' 섹션은 수집된 자료와 기획자·원로 안무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현대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재창조한 것으로, 기록과 창작의 관계를 탐색하기도 했다. 이는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동시에 활용하면서 공연예술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창작의 재료로 활용하며 동시대에 소환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도였다.

국내 예술계는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의미를 계속 생산하고 능동적으로 감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공연예술 아카이브와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은 오랜 역사 아래 쌓아온 양질의 기록물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다.

책 없는 도서관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은 뉴욕시티발레·뉴욕 필하모닉·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등 11개 예술 단체가 상주한 공연예술 종합 센터인 링컨 센터 내에 있다. 덕분에 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연간 400회 이상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연극이나 무용 등 전통 장르에서부터 거리공연·서커스·대중음악 등 현대 장르를 포괄하는 자료가 있는데, 종이책이 전체 자료의 30퍼센트에 불과해 '책 없는 도서관'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책 대신에 음향 기록물·비디오테이프·무대 디자인·포스터·사진 등의 비도서류를 주로 소장하고 있다.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의 꽃은 자체적으로 공연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TOFT Theatre on Film and Tape archive다. 1970년 시작된 TOFT는 브로드웨이와 오프브로드웨이의 작품·지역 공연·주요 인물 인터뷰 등 생생한 공연예술 현장을 담는 데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은 현직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창작



01
여성 국극을 재해석한 정은영 작가의 전시 연계 공연 '비베레vivere'
©일민미술관

01



02

과 연구를 위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공연예술사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강연이나 퍼포먼스, 패널 토론 등 공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서관 내 도널드 앤드 메리 갤러리에서 공연예술 전시를 정기적으로 기획한다.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의 활동은 공연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풍요로운 창작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공연예술에 특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활동이 돋보이는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의 강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잘 드러난다. 최근 도서관은 저작권 문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료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여기에는 무려 18만 점 이상의 고화질 디지털 자료가 망라됐다.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해당 자료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더불어 1996년부터 진행된 온라인 전시 섹션은 도서관 내 갤러리 전시와 연계한 자료를 보여주거나, 소장 자료를 토대로 오직 온라인상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를 꾸미기도 한다. 이처럼 아카이브 내 잠들어 있는 자료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살아 있는 기록으로서 의의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공연예술 분과는 아비뇽의 장 빌라르관La Maison Jean Vilar에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20세기의 연극·서커스·무용·거리공연부터 TV·영화·페스티벌까지 공연예술과 연관된 모든 장르의 자료를 보유한다. '한 공연의 전 과정을 수집한다'는 방침 아래, 공연 작품 관련 도서나 정기간행물, 대본·무대 배경·소품·의상·사진·포스터 등 4백만 점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한다. 특히 공연예술 아카이브는 극작劇作·무대 디자인·연출·연기·관객 수용과 같은 주제에 특화돼 있다.

장 빌라르관은 아비뇽 페스티벌의 아카이브 구실도 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이자 세계 최대 연극 축제다. 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국립민중극단의 단장이던 장 빌라르였다. 그래서 페스티벌과 국립민중극단 자료, 장 빌라르 컬렉션도 함께 보관돼 있다. 이곳은 단순히 공연예술 자료를 소장하는 기관이 아니다. 세계적 명성의 축제를 이끄는 아비뇽의 자부심을 뜻하고, 그간의 역사를 증언하고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허브다. 빌라르관 메인 홀에서는 무대의상을 비롯해 소장 자료 중심의 기획 전시를 만날 수 있고, 맨 위층 자료실에서도 상시 아카이브 전시를 볼 수 있다.

소장 자료는 장 빌라르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갈리카를 통해서도 주요 자료 일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갈리카gallica는 199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선구적으로 시작한 디지털 서비스 사업으로, 사료 가치가 높은 소장 콘텐츠를 선별한 후 디지털화해 개방한 것이다. 프랑스는 이를 필두로 유럽연합EU의 유럽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운영을 주도하고, 효과적인 디지털 콘텐츠 활용에 앞장서 예술문화 민주화를 이루는 데 힘쓰고 있다. 이처럼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발 빠른 디지털 시스템 구축과 분야별로 전문화·세분화된 프랑스 국립도서관 운영체제는 프랑스의 예술 기록 문화 수준과 역사적 깊이, 그에 대한 공유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아카이브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남겨진 기록을 매번 새로운 의미로 읽을 수 있을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공연예술 기록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창작 영역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사용자에게는 아카이브를 접하는 경로나 방법에 따라 공연에 대한 경험의 폭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가 살아 있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온라인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이 필요하고, 나아가 오프라인에서는 공연 기록물을 다채로운 감각으로 일깨우는 형태의 아카이브 전시, 혹은 기록물을 다시 찾아보는 새로운 재연으로서의 퍼포먼스도 유효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카이브의 활용이 공연예술만의 수행적인 스토리텔링이 잘 드러나는 기획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글 **지가은** 미팅룸meetingroom 아트 아카이브 연구팀 디렉터.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02
뉴욕 공연예술 공립도서관
©Kosboot


GASZTRO UDVAR

헝가리 부쇼야라시

헝가리인의 아픔과 불안을 치유하다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헝가리인들은
매년 겨울 부쇼야라시가 열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무서운 표정의 가면과 양털 코트로 무장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Hungary

부쇼야라시를 둘러싼 갖가지 기원

얼마 전 헝가리 남부의 두나(다뉴브) 강변에 자리 잡은, 인구 2만 명이 채 못 되는 작은 도시 모하치Mohács에 다녀왔다. 모하치 인근의 도시 페치Pécs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모하치는 내가 헝가리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다. 1526년, 오스만 터키가 헝가리에 침입했을 당시 모하치는 접전의 최전선에 위치했다. 결국 헝가리 왕 러요시 2세Lajos II가 전사하면서 패배한 이후, 헝가리는 150년간 치욕스럽게도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다. 이때 일은 헝가리인에게 국가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삶의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헝가리인들은 "모하치 패배보다 더하랴?"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하곤 한단다.

부쇼야라시Busójárás는 모하치에서 매년 겨울에 열리는 문화 행사로 모하치의 치욕과 관련해 생겨난 것이라 전해진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이야기는 이러하다. 오스만 터키의 군대가 헝가리를 지배하자 모하치 주민들은 압제를 피해 늪지대나 숲으로 숨어들었다. 숨어든 주민들이 밤에 불을 피우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데, 하루는 어떤 노인이 나타나 말을 건넸다. 마치 우리 옛이야기의 산신령 같은 노인이었다.

"놀라지 마라. 너희들은 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전투를 준비해라. 여러 종류의 무기를 만들고, 무섭게 생긴 가면도 준비해라. 그리고 가면을 쓴 기사가 나타날 어느 비 내리는 밤을 기다려라."

노인은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 며칠 뒤, 정말 가면을 쓴 기사가 나타나 주민들에게 모하치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큰 소리를 내라고 지시했다. 오스만 터키군은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소음과 흉측한 모양의 가면에 놀라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악령의 공격이라 생각한 그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모하치를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부쇼야라시의 기원을 추운 겨울을 몰아내는 데서 찾는 견해도 있다. 겨울철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즈음 헝가리에 가면 거리에 눈이 쌓여 있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두나강에서는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

어오면서 냉기를 더한다. 본래 부쇼야라시 축제는 퍼르성Farsang이라 하는 사육제가 끝나는 2월 중하순에 시작해 사순절 전날에 막을 내리지만, 올해는 3월 2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가면 쓴 부쇼들의 시끌벅적한 가두행진

축제가 열리는 중앙광장에 들어선 관람객을 먼저 맞이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악기가 내는 시끌벅적한 소리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악기 안에 있는 톱니바퀴의 마찰음이 나무통을 울리면서 마치 기관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 외에 소뿔로 만든 악기며, 여러 가지 현악기와 타악기도 등장해 큰 소리를 낸다. 마치 자신들의 선조가 그랬듯 말이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들어가 보면 도시 중심부의 자유의 길Szabadság u.을 따라 가지각색의 먹을거리며, 기념품이나 소품들을 파는 노점상이 늘어서 있다. 조금 더 걸으면 모하치 세체니 광장Mohács Széchenyi tér이 나온다. 여기가 축제의 중심이다. 거리와 광장은 온통 무섭게 생긴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부쇼Busó라 불리는데, 목조가면과 커다란 양털 코트로 무장한 사람들(전통적으로 남성이 맡는다)을 일컫는다. 소나 양의 뿔을 붙인 가면에도 코트처럼 털이 붙어 있어서 괴상망측한 표정이 여실히 살아 있다. 축제라는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이라면 "에구머니나!" 하고 도망칠 만하다.

부쇼야라시는 두나강에서 배를 타고 온 부쇼들이 상륙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습지에 숨어 있던 당시 선조들이 오스만 터키군을 내쫓으며 고향에 돌아오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리라. 강변에서는 갈대와 나무관 같은 것을 태우는데, 이 역시 오스만 터키군을 혼란스럽게 하려 했던 당시 전술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남성들은 가면과 함께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여자들은 헝가리 전통 복장을 입은 채 얼굴을 반쯤 가린 가면을 쓰고 함께 걷는다. 어린이들 역시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변장을 하고 어른을 따라 행진에 참여한다. 자유의 길을 지나 축제 참가자들이 도착한 세체니 광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진다. 광대가 등장하고, 전통무용 공연이 열리며, 곡예도 볼 수 있다.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부쇼야라시

사람들은 가면을 통해 또 하나의 페르소나를 드러낸다. 그 페르소나를 빌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마음껏 펼친다. 우리나라의 가면극에서 천민계급의 광대가 탈을 쓰고 양반 중심의 전통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했던 것처럼, 부쇼야라시에서 모하치 주민들은 가면을 쓰고 '그날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



01

페치와 모하치에서 겪어본 헝가리인은 부쇼야라시 때가 아니면 대부분 침착하고 차분했다. 도수가 높은 헝가리 전통주 팔린커Pálinkar(순도 높은 주정을 얻기 위해 1차 발효된 양조주를 증류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증류주 스피릿의 한 종류)를 즐기지만 술에 취해서 거리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을 본 적은 없다. 페치나 모하치가 헝가리 남부 도시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을 존중하는 분위기라 더 그렇기도 하다.

반면 부쇼야라시에서는 헝가리인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볼 수 있다. 그들은 특히 장난스럽게 행진하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술 취한 사람처럼 익살스럽게 비틀거리면서 행진하는 이들도 있으며, 서슴없이 행인을 껴안는 등 즉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축제 때에는 그 모든

01
무섭게 생긴 가면들



02

것이 웃음으로 용인되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헝가리는 이민족의 지배라는 씁쓸한 기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토의 3분의 2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해 영어조차 배우지 못하는 압제를 받았으며, 근래에도 경제가 어려워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헝가리인들에게 부쇼야라시 축제는 해방구나 마찬가지다. 가면을 쓴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일종의 사회적·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부쇼야라시에는 아픈 과거와 상처,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불균형을 청산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셈이다.

유네스코는 헝가리 작은 도시의 이 오래된 축제에 주목했다. 유네스코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역사보다는 자연적인 기원이었다. 즉 겨울이 끝나는, 겨울을 물리치는 축제라는 의의에 주목한 것이다. 더불어 탈을 깎고 만드는 전통, 축제 관습이 모하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에도 가치를 뒀다. 그리고 모하치 사람들이 이 축제를 통해 소통하고 결속을 다진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2009년 유네스코는 아부다비 회의에서 부쇼야라시 축제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다.

단순한 사회적 행사 이상의 의미를 넘어 도시·사회적 집단·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부쇼야라시의 예술은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부쇼 그룹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되며 보존되고 있다. 개인에게는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가면 조각 기술과 축하 의식에 대한 지식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며 부쇼야라시의 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진다.

02
부쇼야라시 축제를 즐기는 헝가리인들

글·사진 **김병선** 헝가리 페치대학교에서 객원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4년 '헝가리에서 보물찾기'를 썼다.

맛있게 까먹는 우리네 겨울 소리

낭만과 인정이 흐르는 겨울 노래

군것질은 긴긴 겨울밤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다.
예전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군것질을 하며
자연스레 소리를 만들고, 부르고, 전했다.
그 소리는 삶의 방식이며,
군것질 노래 역시 가락마다
우리네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군밤타령에 담긴 계절성과 심리적 위안

겨울,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따끈한 공간과 음식을 떠올리고 인정 어린 손길을 그리워한다. 시린 계절에 생각나는 따스한 추억 중에서도 유독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궁핍할 때 나누던 삶의 지혜와 풍성한 사랑이다. 그 연결고리는 군밤이나 삶은 감자, 군고구마 혹은 군고구마 장



수의 털모자처럼 정답고 포근한 것들이다. 그래서 정다운 겨울노래를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추운 겨울은 언제 왔냐는 듯 저만치 달아난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연평 바다에 어허얼싸 돈바람 분다 (후렴) 얼싸 좋네 아하 좋네 군밤이여 에라 생율밤이로구나

겨울에 부르는 민요를 생각하면 한국인은 아마도 '군밤타령'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귀에도 익숙하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밤'이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물이라면, 노랫말에 등장하는 '돈바람'과 잘 어울린다. 연평 바다의 조기잡이로 돈바람이 불 정도로 풍어豊漁에 들뜬 분위기가 신명 나는 후렴구로 이어지는데, 흥겨운 가락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겨울철 군밤장수가 이 노래를 부르며 장사를 했다는 소박한 해석도 전해진다. 1932년 전수린이 작곡하고 이애리수가 부른 '군밤타령'은 신민요인데, 노랫말은 "너는 총각 나는 처녀 / 처녀 총각이 단둘이 만나서 둥굴어졌구나 / 눈이 온다 (오냐) 눈이 와요 (어데서) 청청한 흰하날에 허허헐사 흰 눈이 온다"이다. '생율밤'이 아니라 "에라 삶은 밤이로구나(좋다)"라는 후렴구를 사용한다. '오냐' '어데서'와 같은 대화체도 지금은 없어졌다.

'군밤'이 노래의 소재로 등장하는 역사는 꽤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속요 중에 '정석가'가 있는데, "바삭바삭한 잔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고, 그 군밤에 싹이 나야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겠다"라는 노랫말이 있다. 임과의 이별을 불가능한 사실에 비유함으로써 임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군밤타령' 노랫말에는 유독 남녀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구가 많다. '처녀 총각이 둥굴어졌다'라는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살이 볼록하게 찐 볼을 '밤볼'이라고 하듯, 밤은 외형상 통통하고 싱싱해 풍요와 다산(여성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군밤타령'에서 추운 겨울을 풍성하게 지내기 위한 가





난한 이들의 심리적 위안과 함께,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계절적 제의성까지 엿볼 수 있다.

떡을 먹고 노래하자

주술과 제의는 '떡타령'에서 유희성으로 이동한다. 요즘은 떡이 흔한 음식이지만 과거에는 일상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조선 시대 한양의 연중행사를 적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12월에 먹는 골무떡을 일컬어 "좋은 쌀을 빻아 체로 쳐서 고수레 한 다음 시루에 쪄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쳐서 조금씩 떼어 손으로 비벼서 둥글고 길게 문어발같이 늘이는데 이것을 권모(골무떡)"라고 했다. 권모拳摸란 '주먹 권' '잡아쥘 모'의 뜻을 지닌 이름이다. 천지신명과 조상에게 감사의 추수 제의를 지내듯 알록달록한 색깔의 골무떡을 빚어 제사를 지냈다. 새해의 풍요와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소박한 염원이 이 과정에 담겨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떡타령'은 떡을 타령화해 주저리주저리 읊어대는 신나는 민요로 변모했다. 19세기 중엽에 김형수가 쓴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를 보면 "때는 한겨울 11월인데…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身是雖閒口是累)"라고 했다. 여기서 '입이 궁금하다'는 것은 간식거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눈 오는 겨울날이면 고구마나 감자, 밤을 삶아 먹곤 한다. 아니면 시원한 무라도 썰어 먹는다. 형편 좋은 집안이야 약과나 다과를 먹기도 하지만 여염집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만들기 쉽고 재료 구하기도 쉬운 떡을 만들어 먹었다.

'떡타령'은 떡의 종류나 특징을 시기와 지역에 따라 노래한다. 떡의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인이 떡을 무척 좋아하고 다양하게 먹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겨울철에 먹는 떡은 "시월 상달 무시루떡 동지달 동지날 새알시미 섣달에는 골무떡"(임동권, '한국민요집Ⅰ')이다. 겨울철에 흔한 무를 넣은 무시루떡, 동짓날에 먹는 새알, 골무만 하게 잘게 만든다 하여 골무떡 등은 겨울과 잘 어울리는 먹거리다. 그리고 '떡타령'은 "산중 사람은 칡뿌리떡, 해변 사람은 파래떡, 제주 사람은 감자떡, 황해도 사람은 서숙떡, 경상도 사람은 기정떡, 전라도 사람은 무지떡……"으로 이어진다. "얼기설기는 무시루요, 두귀가 번쩍은 송편이며, 네귀 번듯은 인절미며, 빈들빈들 빈대떡이요 도장을 맞았다 호떡" 등으로 떡의 특징을 잘 묘사하며, "이치저치 시리떡 너러졌다 가래떡 오색가지 기자떡 쿵쿵 쳤다 인절미 수절과부 정절편 올기쫄기 송기떡 도리납떡 송편떡"과 같이 노래하기도 한다. 도장과 호떡의 생김새, 빈들빈들과 빈대떡으로 이어지는 유사음의 유희, 수절과 정절떡의 의미상호성에 기인하는 떡 이름 덕분에 '떡타령'을 더욱 흥얼거리게 된다.

한과 신명을 소리로 풀어낸 우리 민족

12월 제철 음식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에는 호박범벅도 있다. '범벅타령'에서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범벅을 연결한다.

책방도령은 좁쌀범벅 / 김포수(훈련도감)는 송기(松肌)범벅 // 미운 양반은 시래기범벅 / 고운 양반은 꿀범벅이라 // 얼씨구나 좋다 꿀범벅이요 (리동원, '조선민요의 세계(하)')

책방도령은 책만 읽으니 좁쌀이라 한 모양이다. 김포수는 힘이 좋고 멋져 보이니 송기범벅이 어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꿀범벅을 주고 싶다는 심정이 가사에 잘 드러나 있다.

사실 '범벅타령'은 두 종류가 있다. 달마다 노래하는 월령체 형식이 있고, 서사민요 형태의 '범벅타령'도 존재한다. 그중 뒤의 소리는 '홋사나타령'이라고 한다.

"허리 둥굴둥굴 범벅이냐 누구나 잡수실 범벅이냐 이 도령은 찹쌀범벅 김 도령으난 멥쌀범벅 이 도령은 본남편이오 김 도령으난 후낭군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범벅타령'은 남편이 집을 비우자 여인이 홋사내(애인·간부)를 집에 들여 밤새 질펀하게 놀다가, 갑자기 돌아온 남편에게 들키지만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둔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느냐며 오히려 항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유교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래서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이 노래의 중간에는 달거리 형식으로 "시월달에는 흰떡범벅 / 동짓달에는 동지범벅 / 섣달에는 무수범벅 / 정월달에는 달떡범벅"이라는 노랫말이 나온다. 색깔과 세시·재료·모양 등으로 명명되는 다양한 범벅이 과거 우리네 선조가 먹고살기 힘들었던 시절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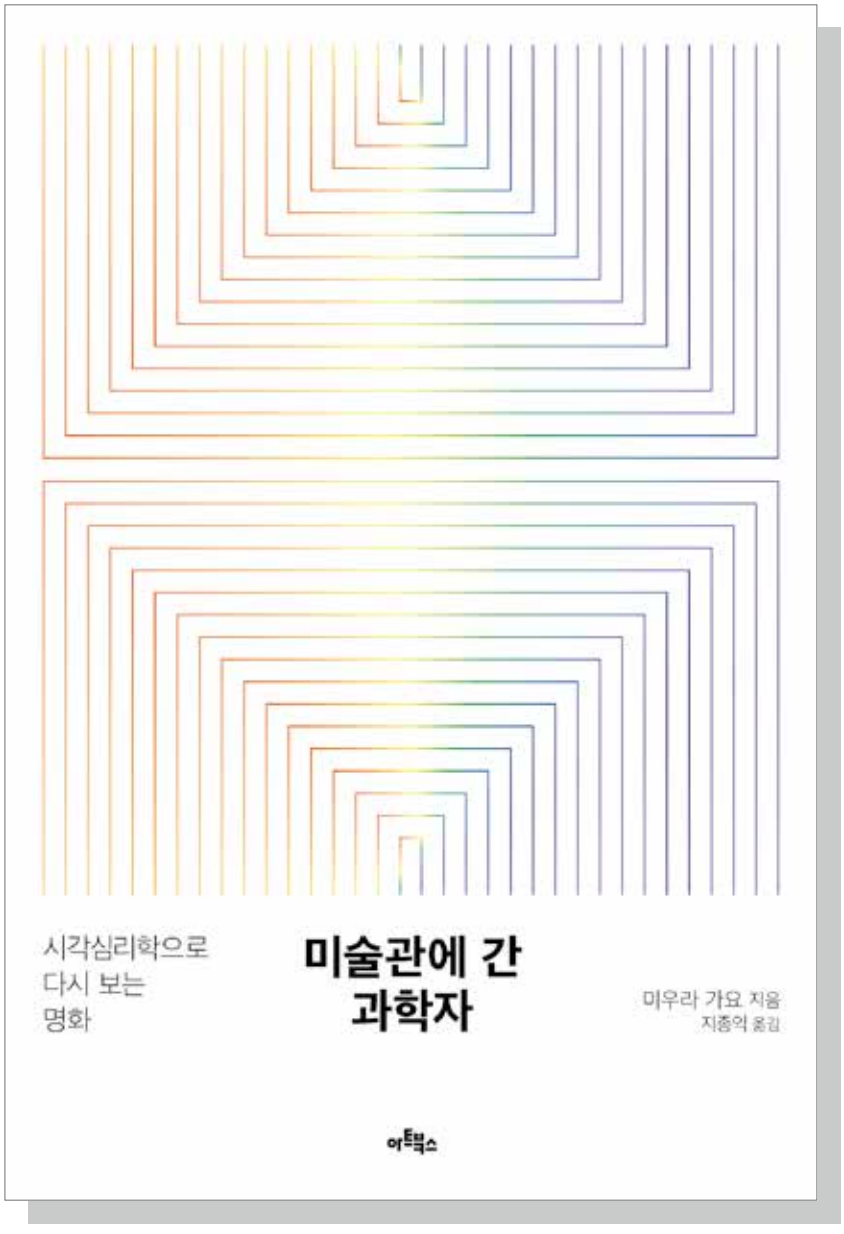
그렇지만 그때의 문화가 오히려 더 낭만적이고 인정이 넘쳐흐르는 듯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이런 소리를 만든 신명신에게 홀린 탓일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삶 속의 한과 신명을 자연스럽게 소리로 다 풀어낼 수 있었기 때문일까.

글 **권오경**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주요 저서로 '고전시가작품교육론' '고악보소재시가문학연구' '우리시대의 고전작가' 등이 있다.
그림 **최지은** 일러스트레이터

미우라 가요 '미술관에 간 과학자'

명화를 낯설게, 세계를 더 낯설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인간이 보는 세계는 각자 지닌 기억·감정 등을
뇌가 종합해 재편성한 세계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의 비밀을 쥐고
독자에게 말을 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그만한 진리도 없다. 책을 읽든 그림을 보든 사람을 사귀든 우리는 아는 만큼 더 보고 그만큼 더 알아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진리를 체감한다. 그저 아름답기만 했던 한 점의 그림은 알고 볼 때 감동이 더 커지고 더 입체적이 되고 더 생생해지고 더 묵직해진다. 마치 복잡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무늬가 상형문자임이 밝혀지듯, 그리하여 그 그림에서 기나긴 문장을 읽어내듯 그렇게 본다. 아는 사람들은.

시각심리학자인 저자는 뇌과학·동물의 인지 연구·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살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온 그림을 새롭게 보도록 한다. 수없이 보아온 그림은 그의 설명 앞에서 낯설어지고 다른 각도로 이해된다. 그러나 저자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작품이란 건 본디 이해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작품을 넘어선, '일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눈을 뜨면 보이는 눈앞의 세계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의 뇌가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토대로 지식과 기억·감정·주변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재편성한 세계다. 눈앞에 있는 것도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조명에 대한 가설이 달라지면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색을 보기도 한다. 원래부터 시야 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범위도 좁다. 즉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이런 파편들을 이어붙인 것이다. 게다가 정보의 선택과 통합, 추론이나 판단에도 시간이 걸린다. 눈을 뜨는 동시에 눈앞에 세계가 펼쳐지는 건 매우 신기한 일이다."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 '본다'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화가와 연구자는 '한통속'이 된다. 화가는 집요하게 관찰을 반복하면서 시각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것을 그림으로 남긴다. 연구자는 그림의 힘을 빌려 설명을 풀어낸다. 저자는 말한다. "화가가 남긴 그림은 시각연구자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견의 기록이고, 새로운 발견을 위한 실험의 결과다."

그래서 그들이 한통속이 돼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설명했나. 저자는 그림 속의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연다.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화가는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그렸을 테고 그때 하필 빛이 저기서 들어온 거겠지, 하는 인식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상정하는 광원의 위치 때문에 그림에 어떤 뉘앙스가 덧붙여지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어째서 빛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들어오면 신비롭게 느껴지는지. 어째서 화가들은 원근법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소실점을 어긋나게 만드는지, 어째서 동양에서는 오른쪽에서 광원이 들어오는 게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마찬가지로 저자는 사람들이 성별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루엣을 보면 왜 그를 남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지, 왜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한다. 화가들은 왜 오른쪽 얼굴을 좋아하는지, 그림 속 인물의 시선에 따라 사람들의 감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묻고 답한다.

모네는 1892년부터 4년 동안 루앙대성당의 파사드를 그렸다. 총 33점의 그림을 그리면서 날씨·시간·빛에 구애하지 않고 다양한 색을 활용했다. 인간에게는 '색의 항상성'이란 것이 있다. 조명이나 그림자에 상관없이 원래의 색과 밝기를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네는 이러한 항상성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색을 선택했다. 모네의 이 시도는 후대 신경생리학자인 세미르 제키의 찬사를 받았다. "모네는 뇌로 그림을 그렸다. 얼마나 대단한 뇌인가!"

인간은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감각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뇌의 수정 작업을 거친 것이다. 색과 빛의 항상성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윤곽과 형태를 인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또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 뇌인가!

글 **박사** 북 칼럼니스트.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책과 문화를 소개해왔다. 저서로 '가꾼다는 것'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경제학자는 미술관에 가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 일단 그림의 가격이나 화가의 수입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경제학자의 미술관'(최병서, 한빛비즈, 2014)의 저자인 동덕여대 경제학과 최병서 교수는 그런 부분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물론, 작품이 그려진 시대의 경제 상황을 추측해보기도 하고 그림 속에서 경제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즉 그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는 것이다. 일본의 풍속화인 '우키요에'를 통해 일본의 경제사를 살펴보고, 그림의 원근법과 소실점을 설명하며 경제학에서의 소실점이라 할 수 있는 균형가격 형성 원리를 곁들여 이야기하는 식이다. 미술사와 경제 이야기를 씨실과 날실 엮듯 쫀쫀하게 짜내 독자에게 미술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2019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10주년 기념 기획전시

무대 위 새로운 공간의 창조

무대 디자인

2019.
10.25.
-
2020.
02.29.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공동주최 국립극장 | 공연예술박물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2019 기획전시 〈무대디자인〉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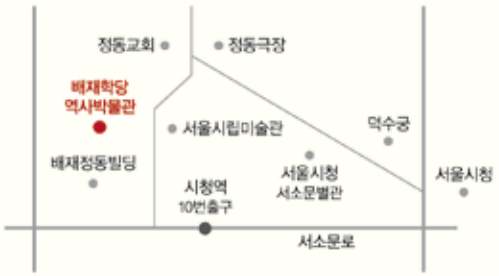
2020년 1월~2월 프로그램

내 용	무대미술 전문가와 함께 무대디자인을 배워보는 일일체험 프로그램
운영일정	2020년 1월 4일 ~ 2020년 2월 29일 (매주 토요일)
일 시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약 150분)
대 상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
인 원	20명
장 소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교육실
참 가 비	10,000원
접 수 일	2019.12.12.(수) 오전 10시~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후 입금 (선착순 마감)
문 의	02-2280-5804, 5806

※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무대디자인〉 3회 이상 참여 시 국립극장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교육취소는 입금 전까지 가능하며 입금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교육장소는 "배재학당역사박물관" 교육실입니다.
※ 대상 연령이 아닐 경우 접수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대상 연령을 확인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시간	주제	내용
1월	2020. 01. 04.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무대&소품 작화	· 무대 작화 디자인과 기법 익히기 · 소품 작화하기
	2020. 01. 11.			
	2020. 01. 18.		무대장치 모형	· 무대장치 모형 만들기
	2020. 02. 01.			
2월	2020. 02. 08.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무대&소품 디자인	· 제시된 장면 무대장치와 소품 디자인
	2020. 02. 15.		무대장치 디자인	· 무대장치 단위 이해와 도면그리기
	2020. 02. 22.		무대&소품 작화	· 무대작화디자인과 기법 익히기, 소품작화하기
	2020. 02. 29.		무대장치 모형	· 무대장치 모형 만들기

※ 교육강사 소개 | 김수희
– 로마 국립 미술대학 무대 미술학과 석 · 박사
– 주요작품 : 〈한 여름밤의 꿈〉, 〈춘향전〉,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라트라비아타〉 등 다수 제작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NATIONAL REPERTORY SEASON 2019–2020

국립극장
National Theater of Korea



국립창극단

아비.방연
2020. 3. 6 - 3. 15 달오름

춘향전(가제)
2020. 5. 14 - 5. 24 달오름

국립무용단

설·바람
2020. 1. 24 - 1. 26 하늘

신작
2020. 4. 18 - 4.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의
2020. 6. 5 - 6. 7 LG아트센터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019. 12. 19 - 12. 20 하늘

신년 음악회
2020. 1. 16 롯데콘서트홀

합창과 국립국악관현악단(가제)
2020. 3. 26 롯데콘서트홀

어린이음악회 엔통이의 동요나라
2020. 4. 22 - 5. 9 하늘

2020 겨레의 노래던
2020. 6. 17 롯데콘서트홀

국립극장 기획공연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2019. 12. 12 - 2020. 1. 26 달오름

해외초청작 | 플레이어스, 마오II, 이름들
2020. 6. 5 - 6. 6 달오름

해외초청작 | 타오 댄스 시어터 4&9
2020. 6. 12 - 6. 14 달오름

NT Live

한 남자와 두 주인
2020. 2. 6 - 2. 9 달오름

리먼 트릴로지
2020. 2. 8 / 2. 12 / 2. 15 / 2. 16 달오름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2020. 2. 13 - 2. 15 / 2. 18 / 2. 19 달오름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공연 문의 및 예매 www.ntok.go.kr 02-2280-4114



NTOK

68
두 공기:
두고두고 회자되는 공연 기록
'청淸'

70
예술배움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74
국립극장 소식

76
전시의 단면



안내 책자(무대·의상 스케치)



포스터



공연 사진

'청淸'

음악극으로 거듭난 창극

2006년 11월 7~12일

2006년 11월 7일 해오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의 국가브랜드 공연 '청淸'이 첫선을 보였다. 국가브랜드 공연은 당시 국립극장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첫해에 국립창극단의 '청淸'이 무대에 올랐다. 이 공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심청전'을 현대 감각에 맞게 웅장한 스케일로 재구성하고 창극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악 관현악 반주를 동반해 음악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창극 '청淸'은 2006년 전주세계소리축제 폐막작으로 초청된 작품으로 소리의 본고장인 전주에서 관객들에게 엄청난 환호를 받았으며 당시 지역 언론에서도 '창극의 대중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그해 11월 국립창극단은 창극의 세계화와 음악극의 보편성에 초점을 맞춰 우리 시대의 창극 시리즈 작품으로 '청淸'을 선보인 것이다.

연출에 김홍승, 작창에 안숙선, 음악에 이용탁, 대본은 박성환이 담당했다. 도창은 안숙선과 유수정이, 심청 역에는 김지숙과 박애리, 심봉사 역에는 왕기철과 왕기석이 더블캐스팅됐다. 공연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는데, 창극 '청淸'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심청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른다. 1부에서는 청이의 출생부터 곽씨부인의 장례, 청이의 성장, 그리고 심봉사의 시주 약속과 청이가 제물이 돼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내용까지 다룬다. 2부는 인당수에 빠진 청이가 옥황상제의 명과 동해 용왕의 도움으로 선녀가 된 어머니를 만나고, 용궁에서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와 황후가 되어, 맹인 잔치에서 아버지와 해후해 심봉사가 눈을 뜨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청淸'은 그다음 해 5월, 해오름극장에서 13회라는 공연 기록을 세웠다. 실제로 당시 서울의 오페라 마니아층은 8천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창극은 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 층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았음에도 13회의 공연 동안 무려 1만 5천 명이란 기록적인 관객을 동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어서 '청淸'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난퉁과 상하이까지 진출해 큰 호평을 받아, 제작 당시 표방한 '창극의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을 들 것이다. 부친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을 제물로 판, 불과 15세의 어린 소녀는 천둥 번개가 치고 파도가 일렁이는 험한 날씨 속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직전 부친에게 작별의 절을 올린다. 이어 자신의 치마를 뒤집어쓰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아버지"를 외치고 시퍼런 바닷물에 떨어지는 장면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가슴에 서늘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

청이가 떨어지고 나서 무대는 군더더기 없이 전환되는데, 청이의 저세상 가는 길을 무용수의 몸짓으로만 표현한 것이다. 청이가 등을 돌려 무대 끝 저편으로 걸어가면서 객석을 두어 번 돌아보다 무대에서 멀어져 갈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꽃잎과 심청의 테마곡에 해당하는 해금의 선율은 청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짙은 여운을 남겨 당시 관람객 대다수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미니멀한 연출은 무대에서도 나타난다. 무대는 기존의 상투적인 세트가 아니라 무대 바닥 전체에 유리 조각을 붙여 조명을 통한 빛의 반사 효과를 살렸다. 하늘과 구름, 바다, 흔들리는 파도까지도 빛의 반사를 적절히 활용해 꽉 차 있으나 비어 있는 여백의 미를 살린 무대로 연출한 것이다. 그동안 창극에서 인당수 장면은 무조건 무대에 배를 띄우는 세트로 진행됐다면, 이 공연에서는 배가 등장하지 않는다. 과감하게도 무대 전체가 파도이자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으로 설정돼 회전하면서 경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장치로 활용했고, 이러한 무대의 움직임은 웅장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감정의 몰입감을 더했다.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영원한 효녀이자 누이인 청이가 주는 마음 깊은 울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글 **하을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청淸'

일자 2006년 11월 7~12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예술감독 유영대
연출 김홍승
작창 안숙선
안무 정은혜
작곡·지휘 이용탁
대본 박성환
무대디자인 이학순
출연 안숙선·유수정·김지숙·박애리·왕기철·왕기석 등

공연예술자료 이용안내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은 약 21만 점의 공연예술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공연예술 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archive.ntok.go.kr)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며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면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공연예술자료실(방문 이용)
02-2280-5834
공연예술디지털아카이브(온라인 이용)
02-2280-5805



주한 영국문화원과 경북도청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노인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노인을 위한 예술은 있다

고령화 시대. 우리는 더 오래,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공유하게 됐다.
의학·과학 등 모든 분야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발전하지만, 그중 예술은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핵심 키워드다.



인류는 전에 없던 장수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82.7세(2017년 기준)고, 유엔은 2015년에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노인은 이제 사회 소수층이 아니고, 고령화사회에서 노인 삶의 질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할머니 스타 유튜버와 할아버지 모델이 탄생하며 기존 노령층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금씩 생겨나곤 있지만, 노인을 현대 예술의 관람객이나 참여자로 여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대적인 국가 재건이 이루어지던 1950년대, 영국의 예술 기관들은 예술계라는 울타리를 넘어 대중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콘서트홀·극장·미술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 및 대중 연계 활동으로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1970년에 들어서면서 예술가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오늘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술 활동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이나 예술품의 전시, 예술 수업 등 단편적이고 일방향적 방식에서 벗어나 입체화되고 있다.

함께하는 예술로 한발 더 나아가다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도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예술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영국의 예술 정책과 이에 따른 예술 기관들의 조응에 힘입어 양적·질적 확장이 이루어졌다.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의 경우,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예술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자, 즉 노인을 이끈다기보다는, 예술가가 예술 활동의 촉매자로서 참여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작품 또는 예술적 경험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예술'보다는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대상은 노인에 국한되지 않고, 연령에 관계없

이 일반 대중까지 포괄한다. 직접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할 때 예술성보다는 참가자의 경험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예술성과 예술가의 예술적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무용의 경우, 커뮤니티 댄스가 이러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무용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시도로 시작됐으며 모든 사람이 춤을 즐길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라고 불리는 무용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라인댄스·사교댄스·발레 강좌부터 참여적 무용까지 포함된다. 참여적 무용이란 특정 무용 동작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한 창의적 표현에 집중하며, 예술가는 참여자의 신체 표현을 이끌어내고,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런던에 위치한 세계적 무용 전문 극장인 새들러스 웰스는 1989년부터 노인 무용단인 컴퍼니 오브 엘더스Company of Elders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무용 경력이 없는 60세 이상 성인 중에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한다. 참여하는 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인 단원이 예술가와 함께하는 전문 무용단으로 볼 수 있으며, 매튜 본·호페쉬 쉑터 등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이 무용단을 위한 안무를 만들고, 정기적 연습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축구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맨체스터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영국 최초 고령친화 도시다. 시 정부의 주도하에 주거·교통·보건·의료·예술 등에 걸쳐 노령 인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며, 예술 기관도 노인을 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맨체스터의 주요 제작 극장인 로열 익스체인지 시어터는 연극 교육이나 활동 경험이 없는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노인 극단 엘더스 컴퍼니Elders Company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 이 극단 담당 연출가 앤디 베리를 초청해 예술의전당의 70세 이상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연극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참가하신 어르신들의 인생 역정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이 조각보처럼 쫀쫀하게 연결된 5분짜리 공연까지 만들어본 알찬 시간이었다.

이 활동은 로열 익스체인지 극장 엘더스 컴퍼니 활동의 단면을 살펴볼 기회였다.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엘더스 컴퍼니는 단원들이 연출가·극작가·배우들과 함께하는 전문 워크숍에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며, 토론·글쓰기와 같은 활동에도 참여한다. 이외에 낭독회·연극 강연·워크숍 등 노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열고 있다.

역시 맨체스터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미술관이자 맨체스터 대학교 부속 미술관인 휘트워스 아트 갤러리도 고령 친화 정책 실현에 적극적이다. 휘트워스는 노령 인구 중 가장 심각한 고립 위험군으로 확인된 고령 남성에 집중해 예술 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남성들이 자기 효능감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알아내고, 이에 착안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책자다.



주한 영국문화원과 예술의전당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연극 워크숍 '브라보, 드라마 같은 내 인생'

예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영국에서는 건강한 노령층뿐 아니라, 노령 치매 환자를 위한 예술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예술적 기회로부터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인 중증 치매 환자들을 위한 예술 활동은 주로 요양원에서 진행된다. 심각한 인지 장애를 겪는 중증 치매 환자에게 예술 활동이 무슨 소용이냐는 반문을 할 수



로열 익스체인지 시어터의 노인 극단 엘더스 컴퍼니
©Joel C Fildes

있지만, 예술 활동은 치매 예방이나 치료가 아닌 예술적 경험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집중하도록 한다. 치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요양사가 예술가들과 함께 즉흥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 치매 환자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를 지각하지 못하는 능력을 상실한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다. 그 순간을 오롯이 함께하는 새로운 주체로 나아간다.

지난 30년간 런던의 낙후 지역에서 예술을 매개로 세대 간 교류 기회를 만들어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매직 미Magic Me의 협력 예술가이자, 골드스미스 대학교의 응용 연극 대학원 과정 강사인 수 마요의 말은 선입관을 깨는 계기였다. "노인 대상 예술 활동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 대상 예술 활동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죠. 노인도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아이들도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흥미를 갖는데 말이에요."

예술이란 무엇인지, 예술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공존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영국의 예술가와 예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르면 '창의적 자기표현'과 '유희성'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연결된 예술의 특징이다. 우리는 예술을 통한 '창의적 자기표현'으로 스스로를 탐구하고, 타인을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고, '유희와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타인과 교감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만나본 영국의 예술가들이 대중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예술 작업의 확장이나 성숙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작업이 참가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은 아닌 듯하다.

몇 살부터 노인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엔의 제안처럼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위한' 또는 '노인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디자인하기란 쉽지 않다. 개개인은 나이나 성별 등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기엔 너무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18년 4월부터 주한 영국문화원은 '포용성'과 '혁신'을 주제로 한·영 예술가들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오고 있다.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예술적 경험 확장과 장애 예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정한 포용의 실현은 나이나 성별, 신체·정신적 능력 등 개개의 다양성에 대한 차별 없는 수용이 전제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예술의 매력 중 하나는 정답 없는 열린 해석에 있다. 예술이야말로 우리가 다양함을 깊이 탐구하고, 포용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글 **박윤조** 주한 영국문화원 아트디렉터. '공주시 디자인 카페: 일상의 행복' '인클루시브 디자인 챌린지' 등을 기획했다. 한국과 영국의 예술 기관과 예술가들의 교류 및 협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12월의 주요 소식

손인영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임명

국립극장(극장장 김철호)은 국립무용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예술감독으로 11월 1일 손인영 전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를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손인영 신임 예술감독은 국립무용단원을 거쳐 서울예술단 무용감독·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등 지역 무용단체의 안무자 및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단체 총괄 운영의 역량을 계속해서 쌓아왔다.

시·도립단체를 이끌며 창의적인 무용 공연을 제작해 전통의 재창작을 시도해왔으며,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유학 시절에는 강강술래 등 우리 춤을 활용한 프로젝트와 단체 순회공연을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립극장은 앞으로 손인영 신임 예술감독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세계로 펼치며 국립무용단의 도약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김차경 국립창극단 단원 수상

김차경 국립창극단 창악수석이 11월 8일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이 주최한 '2019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 시상식에서 전통예술 부문 상을 받았다.

올해 26회째를 맞는 아시아문화경제진흥대상은 아시아의 경제·사회·문화·정치 등의 부문에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경제인 500여 명이 참석해 교류의 장을 펼쳤다.

김차경 창악수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2009년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9년 국립창극단 입단 이래 다수의 작품에서 주역을 맡았으며, '장화홍련'의 배홍련 역, '심청가'의 심청 역 등을 연기했다. 최근에는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의 옹녀 모 역으로 관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승훤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임명

국립극장(극장장 김철호)의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성진)은 지난 11월 4일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이승훤을 임명했다. 이승훤 국립국악관현악단 신임 부지휘자는 국립국악관현악단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로 제1회 담양대피리경연대회에서 피리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학사·석사(피리)를 마치고, 석사(지휘)과정은 수석 졸업했다.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국악대장을 맡아 지휘자로 활동한 그는 국립부산국악원 객원 지휘와 국악방송 특별음악회 초청 지휘,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경찰국악대 합동 음악회 지휘 등 약 500회의 공연을 지휘해온 탄탄한 경력을 갖췄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는 지난 9월 '정오의 음악회' 지휘로 한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승훤 신임 부지휘자는 김성진 예술감독을 보좌해 2년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습 지도와 연주 지휘를 맡게 된다.



국립무용단 '묵향', 파리 코리아센터 개관 기념 초청 공연

국내를 넘어 세계와 통하는 한국 춤으로 호평받는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 '묵향'이 12월 8일 팔레 데 콩드레 드 파리에서 프랑스 관객을 만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유럽 전역에 알릴 목적으로 새롭게 단장한 파리 코리아센터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3년 만에 다시 프랑스 무대를 찾는다.

'한국무용 한류'의 시작을 알린 국립무용단의 '묵향'은 2016년 프랑스 리옹 '레 뉘 드 푸르비에르 페스티벌les Nuits de Fourviere'에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무대에 올라 저명한 무용 평론가 에마뉘엘 부셰로부터 "우아함과 기술적 기교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춤"(주간지 텔레라마)이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봄·여름·가을·겨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군자의 시선을 춤에 담아낸 '묵향'은 서무와 종무 그리고 사계절을 대표하는 식물 매·난·국·죽 총 6장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물드는 의상과 무대,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담아낸 움직임과 음악은 완성도 높은 한국 전통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제시한다.

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한국 춤의 진정한 멋을 보여주는 작품, '묵향'. 세계 무용계로부터 꾸준히 초청받는 '묵향'은 한국 전통무용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격格, 한국의 멋'
한·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초청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한국과 폴란드 수교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2월 4일 폴란드 바르샤바 드라마티츠니 극장에서 '격格, 한국의 멋Dignity of Korean Sounds'을 공연한다. 지난 11월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종료된 '격格, 한국의 멋'의 레퍼토리에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한다. 김성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담은 '아리랑 로드-디아스포라'(작곡 양방언)를 연주하며 국악 관현악의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무대를 위해 한국과 폴란드의 대표적인 민요와 가곡을 국악 관현악으로 편곡한 '아리랑 쥐체니아Arirang Życznia, Arirang of wish(편곡 장태평)를 통해 양국의 전통과 역사를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한다.

김정승, 김애란 두 협연자의 무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격格, 한국의 멋' 서울 공연에서 대금 협주곡 '풀꽃'(작곡 김대성)을 독보적인 음색으로 선보인 김정승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폴란드에서도 감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르샤바 음악원 조교수로 재직 중인 소프라노 김애란은 한국의 가곡 '아리 아리랑' '고풍의상'과 폴란드 가곡 'Gdy Ostatnia roza zwiedla(The days of roses are vanished, 장미의 시대는 사라졌다)'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아름다운 정서를 국악 관현악과 함께 선보인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특히 이번 공연 기간 중 현재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곡가와 작곡 워크숍 등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후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시의 단면

'제1회 현대무용 육완순 발표회'

1963년 9월 25일 명동 국립극장, 한국 무용계의 전환점이 되는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공부한 육완순은
'현대무용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사도라 덩컨의 고향 미국에서
배움을 이어가고자 유학길에 올랐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선보인
'제1회 현대무용 육완순 발표회'는 심혈을 기울인 졸업 논문인 셈이다.
해당 공연은 마사 그레이엄 테크닉을 엮은 'Basic Movement',
미국에서 받은 느낌을 표현한 '미국의 인상', 흑인음악에 애상을 실은 '흑인영가',
기계화된 문명에 대한 두려움을 그린 '공포',
추상적 감정을 움직임으로 구체화한 '마음의 기쁨',
안익태의 음악에 한국 여성의 정서를 담은 '논개' 등 총 여섯 가지로 구성돼 있었다.
동시대 미국 현대무용을 직접 익힌 한국 여성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
당시 무용계에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상설전시실에는 해당 공연의 프로그램 전단이 입장권과 함께 진열돼 있다.
어떠한 춤을 지향하는지 표지에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며,
최초의 대학무용단이던 '오케시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낱장의 프로그램 전단은 묵직한 가치를 담고 있다.

글 **이주현** 공연예술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 **전강인**

※'전시의 단면'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상설전시실에 전시된 유물을 소개합니다.

손 안에 극장을 한가득!

공연 제작과정부터 무대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국립극장 N통이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facebook.com/NTOKstory @ntong_ntong youtube.com/ntong2 blog.naver.com/ntok2010 @ntok_ 국립극장 N통이

국립극장

2019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WINTER CONCERT

2019.12.19 THU - 12.20 FRI

오후 8시 국립극장 하늘

게스트 | 테이, 이희문과 놈놈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9-2020

예술감독 김성진 **지휘** 이승훤 **음악감독** 이지수 **연출** 김형석

관람료 전석 5만원 **예매** 국립극장 02-2280-4114 | www.ntok.go.kr

인터파크 1544-1555 |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 ticketlink.co.kr



국립극장 마당놀이 '춘풍이 온다'

독 자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9.12.31.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제40370호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국립극장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예 ☐ 아니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월간「미르」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양도하지 않으며, 구독 해지 요청 시까지 유지됩니다.

국립극장 미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월간「미르」담당자 앞

0	4	6	2	1



공연예술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무대디자인'展

12월호 독자의견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공연 초대권 등 선물을 드립니다.

---

01 「미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02 이번 호에서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03 「미르」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